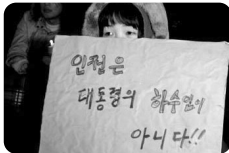


# Contents



## issue

기획특집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 반차별 운동, 새롭게 시작합시다!	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5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새 정부에 바란다	8
	여성투사를 부르는 시대	13



## survivor' s voices

상담실에서	기획상담을 계획하면서	16
상담통계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8
생존자의 말하기	水の 이야기 - 연재8 '發光 vs 發狂'	22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8
	열린터를 나가며 Good-bye	29
	2008년 열린터 살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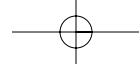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 edutainment

몸이야기	연재3 - 지금 여기에서, 내 몸으로 세상을 바꾸다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뵙는 정경자 선생님	36
이런 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 마음의 극장	38
소모임 생각	토닥 고정칼럼 -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그리고 고백성사	40
해외 통신	젠더와 인종, 美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41



## report & membership

똥대상담소	똥대 상담소	44
사업 review	뜨거운 축제, 함께 한 여러분들에게 반.한.날!	46
	제 17차 정기총회, 이렇게 열렸습니다!	4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48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다녀와서	49
사업 preview	작은말하기/심화교육/수요시위	51
들고나기 인사	Citi-경희 NGO Internship 활동 후기	52
회원소식	소모임 활동보고/훈훈한 기부/아낌없이 주는 나무	56



## 반차별 운동, 새롭게 시작합니다!

◎ 성문화운동팀 키라

지난 나눔터에서는 여러분들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으로부터 심각하게 후퇴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법무부의 훼손된 차별금지법안을 보고 경악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상담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 17대 국회에서 반차별공동행동과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경합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대 국회에서는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차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지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으로 공동행동에서는 직접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함께 검토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훼손시킨 차별금지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28일,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 입법 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에는 법무부가 12월 입법예고했던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 ‘출신국가’, ‘병력’, ‘범죄경력’, ‘성적지향’,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차별 금지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강제성을 띄기 위한 것입니다.

1) 차별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으로 강제성이 있는 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통의 손해배상에 더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차별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건 원고, 그러니까 차별피해자가 그걸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사실을 증명하는 것조차도 약자인 차별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마련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피해자가 차별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차별사실이 없었다거나 그게 차별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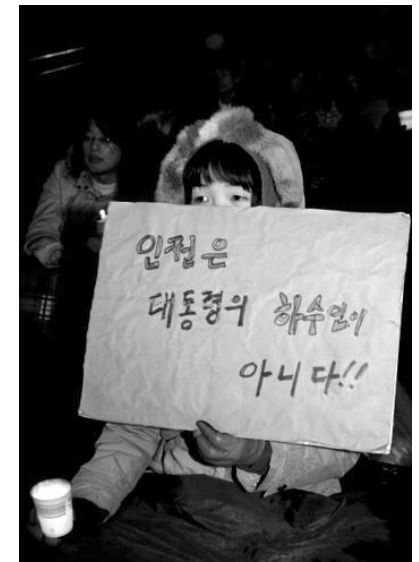


하지만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경합하였던 17대 국회에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공약은 지켜지지 못한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고, 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 사회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롭게 맞은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지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수호를 위한 투쟁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준비하던 중, 공동행동이 새롭게 맞게 된 국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여타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주관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될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올바른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사수를 위한 투쟁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는 결의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사수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 국가인권위는 최종적으로 그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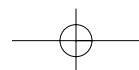
### 릴레이 워크샵 : 차별이라는 키워드와 반차별 공동행동의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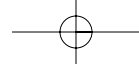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릴레이 워크샵은, 반차별 공동행동의 활동 전망에 대한 내부 논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sup>2)</sup>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구요? 그것은 반차별공동행동이 어떤 지향을 갖고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모였다는 공통점 이외에, 서로 매우 다른 운동의 주제와 역사·운동의 지향을 갖

고 활동해왔습니다. ‘법’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해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처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로 모일 때에는 ‘정부의

2) 릴레이워크샵에서 발제를 한 각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3 기독교연대,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1/31 카노스, 나누라+, 인권운동사랑방
- 2/14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언니네트워크
- 2/28 성소수자차별지적무지개행동, 수유너머, 임시차별폐지국민운동본부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 다시 제정하도록 힘을 모으자'라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반차별공동행동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반차별공동행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이었지요. 하지만 공동행동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 이외에 운동의 목표를 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차별운동'에 대한 지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반차별 영화 상영회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명동 인디스페이스에서 반차별영화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sup>3)</sup>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번 기회에 영화를 통해 차별을 말하고자 하였지요. 영화를 계기로 차별을 사람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 알아야 하고, 차별이 얼마나 나쁜지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또한 차별을 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참 많습니다. '차별은 나쁘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제이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차별은 '당연한'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차별이 나쁘다는 것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남편이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 정리하고 1순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는가? 그것 역시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차별'에 대한 기계적 해석입니다. 차별은 개인과 개인의 '다름'을 넘어 그 다름이 차별이 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함께 드러낼 때 그 급진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기계적인 차별/평등 개념을 넘어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문제제기해왔던 사회적 이슈를 좀 더 급진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차별에 반대한다'는 구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구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로의 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운동의)주체'를 어떻게 의미화 해왔는지를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환기하고, 그 운동의 외연을 확장,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화해 차별 당한 사람조차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관습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것이 더 무서운 '차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차별운동이 우리 사회의 표준과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요한 운동의 목표로 내걸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결정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의 과정을 밟아 가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마음 속 깊이 기대합니다!**

<sup>3)</sup> 18일에는 <화기에에>, <나의 혈육>, 19일에는 <사회가 만든 감옥>,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제 9법안 찬반투표>, 20일에는 <대지의 소금>, <고스트>가 상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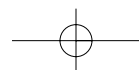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장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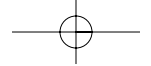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로써 선언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은 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캐나다 인권법, 뉴질랜드 인권법, 아일랜드 평등지위법과 같은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거나,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차별의 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 '차별'에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까지 '차별'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등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의미가 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의 준비 끝에 입법권고하였던 차별금지법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작년 10월의 입법예고 후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로 성적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입법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초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법무부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 등을 삭제한 것은 마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대폭적 후퇴에 대해 성소수자인권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차별 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정부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펼쳐 왔고, 이와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러 인권, 사회단체가 모여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의 연대체가 결성되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응하는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은 마치 차별금지사유를 구분하고 위계화 하여 역설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시킨 정부안에 반대한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고용영역, 금융서비스나 재화 등의 공급, 교육영역이나 공적영역에서의 차별은 차별당하는 개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거나 존재 자체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반차별공동행동안은 차별금지사유로 정부안에서 삭제되었던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을 명문화하였고,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고용형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차별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차별금지사유를 법률 해석의 2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든지 차별금지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반차별공동행동안은 정부안과 달리 차별 구제 수단으로써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지원 등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 차별의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발언권 및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송지원 등은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 구제수단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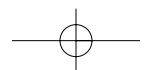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인정된 경우 소송의 부담이 가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인 차별피해자의 입장에서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차별가해자인 피진정인이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담보하고, 만일 피진정인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차별가해자인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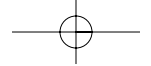
한편 악의적 차별의 경우, 즉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나 차별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과 같이 악의적이고 대규모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이하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가해자 또는 장래의 차별가해자로 하여금 악의적 차별을 처벌하고 억제하는 기능, 실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적은 이유는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보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차별구제를 보장함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차별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차별과 관련된 판례군이 형성이 된다면 그 판례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으로 작용하여 차별예방 등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수년간의 각 기관, 단체, 전문가의 연구 및 합의과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양 차별금지법안의 17대 국회에서는 회기만으로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존, 존재 자체의 의미와 직결된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습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 차별의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발언권 및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쟁점과 입장

na  
눔터  
info. in common

# 새 정부에 바란다

보호를 넘어, 인권존중의 반(反)성폭력 정책을

◎ 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로써 반(反)성폭력정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번에 '보건복지여성부'로 보내지려다가 간신히 존치하게 된 '여성부'에서 맡게 되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대(對)여성폭력정책이 이제 막 보호담론에서 벗어나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점에, 이같은 표류는 반성폭력정책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정책의 후퇴를 예감케 한다. 더욱이 대통령후보시절 전국에 생방송된 TV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후보가 당선 후에는 여성가족부의 통폐합을 선언하고, 이후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성부'가 겨우 남은 것을 보면, 4월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NGO들의 세심한 정책 모니터링과 비판, 제언 등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가 어떤 철학으로 반성폭력정책을 펼쳐가야 할지 제언하고자 한다.

## 1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반성폭력 정책

성폭력 피해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극복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무료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로 임신한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해 인공유산을 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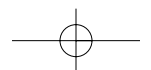
300만원이내의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을 뿐더러, 병원에서는 생존자에게 '강간의 입증'을 위해 판결문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고소라도 전제되기를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 고소율이 10%미만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는 생존자의 권리찾기에 원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 및 인공유산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도 사문화된 정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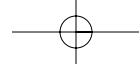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더불어 성폭력은 여성의 일상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방해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주변인들의 성폭력피해는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성폭력을 단순히 피해자 개인들의 문제로 보거나 피해자 보호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서, 성폭력의 발생요인 분석 및 대안모색을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야 한다.

## 2 여성인권정책의 조정, 총괄 기능의 강화

2001년 여성부 신설로「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폭력피해 여성의 권리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또한 제1차~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쟁점과 입장 \_ 새 정부에 바란다





(1998-2012)의 주요과제로 여성폭력 발생방지 환경조성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중이다. 이러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행은 여성문제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성인권 관련 정책은 한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등 범행정부처간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대책단>이나, 2003년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의 경우처럼 범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접근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실태조사, 시설평가, 여성폭력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3 피해생존자 권리보장을 위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에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또한 아직도 사법부의 관행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의 영향 아래 있다. 나아가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아래 피해생존자의 권리는 오히려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특별법은 1994년 제정이래 크게 4번에 걸쳐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친고죄가 존치하며, 아내강간 처벌조항도 없고, 공소시효의 정지 및 배제도 안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 인권침해 논란에 밀려 매우 제한적인 신상공개(세부정보공개)제도에 머물러 있다.

한편으로는 현행법이 제대로 운용만 되더라도 성폭력 신고율 10%미만, 기소율 43%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피해생존자의 권리(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진술녹화제도, 비공개재판청구권 등)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생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담당자 교육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현행법과 제도는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 머물고 있어 넓은 의미의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법 중 처벌법은 형법

으로 보내고, 기존의 성폭력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 4 NGO와의 상호건제적 협력관계 유지

그동안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희롱 관련법(1999), 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년) 등 여성폭력 관련법이 차례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의 제·개정에는 무엇보다 피해여성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기폭제가 되었고,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열정적인 활동,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NGO들이 중심이 되어 500여개소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들 민간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토대가 되어 지금까지 여성인권관련 정책의 마련에서부터 구체적인 행정업무과정에 이르기까지 NGO의 모니터링과 비판, 협조, 제언활동이 이어져왔고, 이는 반여성폭력 정책의 질적 성장의 자원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체 상담소 중 절반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지원규모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한 개소당 연간 5,600만원선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 운영관리에 관한 법규정도 사회복지법을 따르도록 하여 전국의 각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정부지원여부와 관련없이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율적인 반성폭력운동 철학과 방식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기 어려운 중앙통제방식의 상담통계입력 정책이 마련되는 등 여성폭력의 특수성이 무시된채, 획일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부의 성찰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여성폭력의 특성이 고려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NGO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책무 이행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했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로, 매4년마다 협약이행 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하며 권고내용의 이행의무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성폭력철폐선언이 채택된 1993년 제48차 UN총회에 이어,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 등에서 세계 각 국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 강구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로부터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이 낮은 점을 지적받았다. UN은 우리 정부에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새 정부는 이러한 UN의 권고 이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반(反)여성폭력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새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정책은 성폭력 예방이다. 우선 학교 성교육의 연령별,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담당교사 교육을 통한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형식적인 의무이행 수준의 교육 행태를 벗어나 자기성찰을 위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실시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 예비군훈련장, 노인대학, 평생대학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인교육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 재판, 의료, 보도 담당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효율적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력은 범죄이며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예방교육의 일환이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시혜적 접근이나 '피해자화'가 얼마나 이들의 치유에 걸림돌이 되는 지 우리 사회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갖고 있는 치유를 향한 강한 힘과 용기, 지혜가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여성투사’를 부르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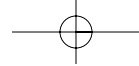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

**편집자주** 이 글은 정치공학적 협상의 결과로 여성부 존치가 결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부 존폐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논평이 <나눔터>의 기획의도이므로 이 글을 수정없이 게재합니다.

이제 겨우 7살의 나이로 접어든 여성부/여성가족부를 무작정 없애겠다는 것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이다. 이처럼 여성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되는 부처라고 한다면, 지난 7년 동안 국가는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을 공연히 만들어 예산낭비를 했다는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국민은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이라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처에 목숨을 불여주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이제 와서 그 목을 무참하게 베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만 한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여성들이 처한 오늘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그리고 이 나라가 말하는 '평등'의 실체에 비추어, 반드시 범국가적, 범국민적 공개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부의 존치,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 하는 모습은 이 부처의 출생이유와 존재가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성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비추어질지도 모른다. 일부 여성들이 '권력화'를 위해 여성부에 목을 매는 것처럼, 또는 여성들의 요구가 마치 여성부 하나만 있으면 다 충족되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곡해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여성부의 목숨이 정치꾼들간의 이해득실의 거래대상이나 표발을 의식한 선심





성 미끼의 하나로 전락하는 상황마저도 연출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처럼 한심하고 치졸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오늘도 더 큰 한숨을 짓고 있다. 그리고 더없이 분노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 속에서 '여성부' 라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까지에는 너무나 오랜 시일이 필요했었다. 이 생명이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초미니부처' 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했었다. 우리의 대대손손 어머니들이 감내해야 했었던 온갖 차별과 치욕의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치유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과 그 후손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저 '여성들의 높아지는 목소리' 를 의식해서, '구색맞추기를 위해서', 아니면 '여성친화적인 정부를 가장하기 위해서' 가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여성부는 이처럼 허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를 타타기는 커녕, 아주 어렵게 태어난 이 생명이 혹시라도 목숨을 잃을까봐 안절부절 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지켜왔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상황 역시 너무나 구차스러운 것이었음에도, 이를 두고 거꾸로 '남성에 대한 역사별', '여성에 대한 특혜' 를 운운하는 잔인한 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형국에 이른 것이다. 이를 보며 어찌 분노가 솟구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다른 분노도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80여개 여성단체들이 마련한 여성정책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자리에서 너무도 쉽게 여성가족부를 존치,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당선이 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떤 변명조차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 약속을 저버렸다. 그에게 '약속' 이란 이처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인 모양이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내세운 '공약' 까지도 한낱 임기응변이나 말장난 수준으로 끝낼 수 있는 모양이다. 이제와서는 여야 간에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나온 '여성부 존치' 절충안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저히 내 소신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후보시절에는 자기 '소신' 과 정반대의 약속을 하면서까지 국민을 농간했었다는 말인가? 무서운 일이다. 여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노들이 다시금 여성들을 한 자리에, 한 목소리로, 결집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 간에 이념적 간극과 계급적 분화와 권력의 양극화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여성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범여성적' 목소리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부의 출생이 '범여성적' 투쟁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 여성부의 죽음은 이 역사를 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실은 범여성운동의 깃발을 또 다시 올리는 힘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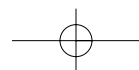
그 오랜 세월동안 국가체제가 여성을 배제,  
소외시키는 정책들로 채워져왔다.  
이것이 여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사회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  
그 틈새를 만드는 시도가 바로  
여성부의 기본역할이었다.  
더 나아가서 여성부는  
그동안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과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고민하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부는 여성의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그 오랜 세월동안 국가체제가 여성을 배제, 소외시키는 정책들로 채워져왔고 이것이 여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사회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 그 틈새를 만드는 시도가 바로 여성부의 기본역할이었다. 물론 이러한 틈새만들기 만으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문제와 현실을 바로잡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부는 국가기구 전반에서 국가정책들을 여성적 관점에서 또한 성평등적 관점에서 다루는 기본틀이 온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존재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당연히 장시간과 치열한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서 여성부는 이 보다 더 거대한 비전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과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고민하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 라고 떠들어대는 이유는 남성중심적 문명과 사회가 생태계 위기와 함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역시 '남성적' 관점과 가치와 접근방식으로 이룩한 '근대성' 이 벌써부터 그 한계와 파행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패러다임' 은 '여성적' 관점과 가치와 접근방식으로부터 새로운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대로 여성들이 또는 이들과 함께 하는 남성들이 '여성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구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고맙고 천만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장삿속' 으로만 따지겠다는 것인가? '여성부' 는 당장 '수지타산' 이 안 맞는 것이니 폐기처분해도 된다는 말인가? 대체 무엇이 그 수지타산을 따지는 기준이란 말인가? 지금은 이러한 물음들조차도 곧장 허공으로 증발되어버리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여성투사' 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p.s. 결국 정치협상의 우여곡절 끝에 여성부는 그 이름만 겨우 건지는 빈사상태로 남게 되었다.



## 기획상담을 계획하면서

◎ 여성주의상담팀 이산

여성주의상담팀은 올 해 사업 중 하나로 여성의 인공유산 경험에 대한 기획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기간을 정하여 상담을 받은 뒤 하반기에 이를 이슈화할 예정이다. 기획상담의 장에서는 상담 사례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된 상황부터 인공유산 당시의 상황, 이후 삶의 변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현재 인공유산은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지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유산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유산을 한 여성들의 경험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인공유산 경험을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인공유산을 금지하는 사문화된 형법조항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공유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특히 비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혼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적으로 문란한', '책임지지 못하는 성관계를 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여성의 인공유산 경험 드러내기를 굳게 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유산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획 상담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사회의 가부장적 시선에 대응하는 다른 힘을 가진 여성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편견에 찬 비난은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운 시선에 노출될 때 여성들이 그간 깨닫지 못했던 고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여성주의 상담의 현장에서 종종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소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성폭력피해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인공유산'이 실제로는 난항에 부딪히는 사례를 접하면서부터였다. 물론 비합법적인 시술로도 중절은 가능하지만, 피해로 인한 임신 후 인공유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거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지난 나눔터 58호에서 다루었듯이<sup>1)</sup>,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원스탑 지원센터에서조차 해당 사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야 시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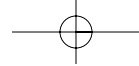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이후 '성폭력피해로 인한 임신인지 누가 입증하고 책임질 것인가'라는 의료 현장에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인공유산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상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과 성폭력피해로 인한 임신이 여성들의 삶에서 칼로 자르듯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에 실패한 섹스의 결과이다. 이성애 섹스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주로 누구의 욕망 때문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드러나지만, 피임을 하지 않은 상대 남성은 어디로 갔는가? 임신을 했지만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가 주목하는 것이 오로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이 상황 자체는 여성에게 폭력적이지 않은가? 왜 생명권은 '태어날 권리'와 '낳을 권리'가 분리된 것인 양 주장되는가?

현재 인공유산이라는 주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안에서 맴돌고 있다.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몇 주부터 태아가 생명권을 갖게 되는지, 인공유산의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다. 여성의 몸이 오로지 '아이를 낳는 통로'로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인공유산의 허용범위에 사회적인 이유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은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고통을 '지울 수 없다'와 '있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떻게 고통이 새겨져있는지' 바라보고 말하겠다는 피해생존자의 의지가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렇듯, 인공유산의 경험을 여성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획상담이 인공유산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1) 이미경(2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 <나눔터> 58호, 한국성폭력상담소





##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 여성주의 상담팀

### 1. 전체 상담 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9,800건(60,099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1,557건(79.3%)이었다.  
2007년에는 총 2,101건(3,330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910회(57.3%), 메일 상담 1,080회(32.4%), 면접 338회(10.2%), 기타 2회(0.1%)였다. 전년 대비 전화상담비율은 0.2%, 면접상담은 1.0% 감소한 대신 인터넷상담은 1.6% 증가하였다.  
성폭력 상담은 1,948건(92.7%)으로 기타 상담의 비율을 줄이고, 성폭력 상담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2006년 대비 916회 감소하였으나, 2번 이상 상담한 지속상담 비율이 2006년 58%였던 데에 비해, 2007년의 지속상담비율은 63%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전달 위주의 1회성 상담보다, 지속 상담과 지속 사건지원에 집중 지원하였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 유형의 경우 본인이 상담한 경우가 2,014회(63.8%), 대리인이 상담한 경우가 1,086회(34.4%)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51회(1.5%)를 차지하였다.

### 2. 2007년 상담 현황

####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1〉의 2007년 성폭력상담건수 1,948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881건(96.6%), 남성이 61건(3.1%), 미상이 6건(0.3%)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1,258건(64.4%), 청소년 312건(16.0%), 어린이 234건(12.0%), 유아 110건(5.6%), 미상 34건(1.7%)로 나타났다.

〈표1〉 2007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226(62.9)	300(15.4)	221(11.3)	104(5.3)	30(1.5)	1,881(96.6)
남	29(1.5)	12(0.6)	13(0.7)	6(0.3)	1(0.1)	61(3.1)
미상	3(0.2)	0(0.0)	0(0.0)	0(0.0)	3(0.2)	6(0.3)
총계	1,258(64.6)	312(16.0)	234(12)	110(5.6)	34(1.7)	1,948(100)

####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 2〉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772건(39.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689건(35.4%), 성희롱 201건(10.3%), 스토킹 91건(4.7%), 강간 미수 73건(3.7%),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1건(2.1%), 카메라이용촬영이 23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07년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유형 총 계	강 간 689(35.4)				강간 미수	성 추 행	성 희 롱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스 토 킹	음화 등의 제조 유괴	간접 성폭력	미상	기타
1,948 (100)	516 (26.5)	65 (3.3)	66 (3.4)	42 (2.2)	73 (3.7)	772 (39.6)	201 (10.3)	41 (2.1)	23 (1.2)	91 (4.7)	1 (0.1)	1 (0.1)	49 (2.5)	7 (0.4)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3〉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902건(97.6%), 여성 26건(1.3%), 여/남 1건(0.1%), 미상 19건(1.0%)으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에게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의 의해,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성인 1,607건(82.5%), 청소년 166건(8.5%), 어린이 47건(2.4%), 유아 16건(0.8%), 미상 112건(5.7%)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유아 가해자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3〉 2007년 성별, 연령별 가해자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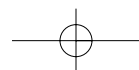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0)	4(0.2)	0(0.0)	0(0.0)	2(0.1)	26(1.3)
남	1,583(81.3)	162(8.3)	47(2.4)	15(0.8)	95(4.9)	1,902(97.6)
여/남	0(0.0)	0(0.0)	0(0.0)	1(0.1)	0(0.0)	1(0.1)
미상	4(0.2)	0(0.0)	0(0.0)	0(0.0)	15(0.8)	19(1.0)
총계	1,607 (82.5)	166(8.5)	47(2.4)	16(0.8)	112(5.7)	1,948(100.0)

####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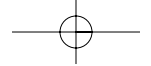
〈표4〉의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665건(85.5%), 모르는 사람 242건(12.4%), 미상 41건(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490건(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73건(14.0%), 친밀한 관계 174건(8.9%), 초중고 대학 149건(7.6%), 주변인의 지인 118건(6.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2007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아는 사람 1,665 (85.5)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273 (14.0)	직장내	친밀한 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초중고 /대학	학원/ 유치원	주변인 의 지인	기타				
149 (7.6)	124 (6.4)	490 (25.2)	174 (8.9)	69 (3.5)	92 (4.7)	74 (3.8)	149 (7.6)	61 (3.1)	118 (6.1)	165 (8.5)	242 (12.4)	41 (2.1)	1,948 (100)







## 5) 피해/가해 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로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다음 <표5>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과 어린이, 유아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가 더 많았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대부분 성인에게 일어나지만, 청소년, 어린이, 유아 피해도 보고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에게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2007년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연령				미상	총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강간(준강간 포함)	359(18.4)	135(6.9)	61(3.1)	15(0.8)	11(0.6)	581(29.8)
강간미수	57(2.9)	11(0.6)	3(0.2)	1(0.1)	1(0.1)	73(3.7)
특수강간	39(2.0)	20(1.0)	5(0.3)	1(0.1)	1(0.1)	66(3.4)
강간치상	40(2.1)	0(0.0)	1(0.1)	0(0.0)	1(0.1)	42(2.2)
성추행	414(21.3)	116(6.0)	146(7.5)	86(4.4)	10(0.5)	772(39.6)
성희롱	183(9.4)	9(0.5)	1(0.1)	2(0.1)	6(0.3)	201(10.3)
통신매체이용음란	30(1.5)	8(0.4)	2(0.1)	0(0.0)	1(0.1)	41(2.1)
카메라이용촬영	21(1.1)	2(0.1)	0(0.0)	0(0.0)	0(0.0)	23(1.2)
스토킹	85(4.4)	5(0.3)	1(0.1)	0(0.0)	0(0.0)	91(4.7)
음화등의 제조유포	1(0.1)	0(0.0)	0(0.0)	0(0.0)	0(0.0)	1(0.1)
간접성폭력	1(0.1)	0(0.0)	0(0.0)	0(0.0)	0(0.0)	1(0.1)
기타	6(0.3)	0(0.0)	1(0.1)	0(0.0)	0(0.0)	7(0.4)
미상	22(1.1)	6(0.3)	13(0.7)	5(0.3)	3(0.2)	49(2.5)
총계	1,258(64.6)	312(16.0)	234(12.0)	110(5.6)	34(1.7)	1,948(100.0)

가해 유형별 연령 분포는 <표6>과 같다. 전체 상담 중 성추행이 772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581건(29.8%), 성희롱이 201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과 강간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다. 가해자가 어린이, 유아인 경우 성추행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표6> 2007년 가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가해유형	연령				미상	총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강간 (준강간 포함)	484(24.8)	53(2.7)	4(0.2)	0(0.0)	4(0.2)	581(29.8)
강간미수	66(3.4)	2(0.1)	1(0.1)	0(0.0)	4(0.2)	73(3.7)
특수강간	39(2.0)	17(0.9)	2(0.1)	0(0.0)	8(0.4)	66(3.4)
강간치상	39(2.0)	0(0.0)	0(0.0)	0(0.0)	3(0.2)	42(2.2)
성추행	623(32.0)	75(3.9)	35(1.8)	15(0.8)	24(1.2)	772(39.6)
성희롱	186(9.5)	7(0.4)	1(0.1)	1(0.1)	6(0.3)	201(10.3)
통신매체이용음란	25(1.3)	5(0.3)	1(0.1)	0(0.0)	10(0.5)	41(2.1)
카메라이용촬영	19(1.0)	3(0.2)	0(0.0)	0(0.0)	1(0.1)	23(1.2)
스토킹	89(4.6)	1(0.1)	0(0.0)	0(0.0)	1(0.1)	91(4.7)
음화등의 제조유포	1(0.1)	0(0.0)	0(0.0)	0(0.0)	0(0.0)	1(0.1)
간접성폭력	1(0.1)	0(0.0)	0(0.0)	0(0.0)	0(0.0)	1(0.1)
기타	5(0.3)	1(0.1)	0(0.0)	0(0.0)	1(0.1)	7(0.4)
미상	30(1.5)	2(0.1)	3(0.2)	0(0.0)	14(0.7)	49(2.5)
총계	1,607(82.5)	166(8.5)	47(2.4)	16(0.8)	112(5.7)	1,948(100.0)

## 3. 2007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상담의 동향

### 1)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성폭력피해로 인한 인공 유산관련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입증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여성들이 삶을 기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상담 건수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2007년도에도 직장 내 관계인 경우가 490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5년도에 562건(26.1%), 2006년도에도 527건(22.7%)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법에 의거해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다행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상당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식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문화에 대한 폭넓은 문제제기가 가능한 정책적 지향을 확실히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3) 스토킹

올해 상담소에 보고된 스토킹 피해는 총 91건으로, 이는 전체 성폭력 피해 중 4.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스토킹 피해만을 호소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강간, 성추행 등 다른 피해와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스토킹 방지법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히 폐기되어,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신 등을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생존자 말하기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꼭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화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氷'의 연재수기 여덟 번째 이야기가 실립니다.

연재 8th

## 發光 vs 發狂

◎ 氷

그 놈의 지랄 발광發狂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내 속에 살아남기 위한 빛도 발광發光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뽕’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없이 우리 교회 정문 앞 지붕위에 달아놓은 나무 십자가가 땅으로 꼬꾸라졌다.

거꾸로 처박힌 십자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건.

목사이고, 아빠이지만 개만도 못한 더러운 짓을 일삼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어 세운 나무 십자가가 땅에 처박힐 때, 나는 ‘아, 신도 저 새끼를 버렸구나, 신이 이제야 신을 밟벌이 도구로 삼아서 살고, 나에게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는 저 새끼를 버리는구나! 이제부터 신은 내 편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 # 1 ‘미안하다’ 오용

그 사람의 지랄 발광은 나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던 그 사람은 나와 친한 동네 친구 한 명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며 운전을 가르쳐주었다. 당시 내 친구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순진하고, 어른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 그 사람은 내 친구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학교에 데리러 가서 운전을 가르치고, 내 동생들과 나의 하교시간이 되면 순서대로 태우러 왔다. 나는 그냥 친구랑 함께 다니는 게 좋아서 내 친구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애써 외면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여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우리 차를 타지 않기 시작했고, 발걸음을 끊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지만 불길한 어떤 느낌 때문에 전화도 해볼 수 없었다. 답답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런 내 느낌은 적중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다. 그 날도 정말 이상한 건 집에 동생도 엄마도 어느 누구도 없었던 것.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런 날들은 그 사람과 나만 집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인지, 불쾌한 순간들은 늘 그렇다. 갑자기 그 사람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OO야, 미안해, 내가 너 배신했어, 나, 너 친구랑 잤어, 요즘 개랑 거의 만날 여관 갔었어. 개 장난 아니더라, 진짜 처녀였어, 처음 할 때 피가 어찌나 나던지, 그 피 묻은 팬티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개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겨우 끌어냈어, 나를 짹짹 빨아들이는 힘이 장난이 아니야, 나 근데 너한테 잘못하는 거 같아서 헤어졌어, 너한테 제일 미안해”

‘미친놈 개지랄 한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난 내 친구한테 미안해 죽겠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닌데, 개새끼보다도 못한 새끼야, 똥져라, 똥져, 아, 그리고 기분 더럽게 그제 뭐가 나한테 미안해, 니가 나한테 미안하게 여겨야 하는 건 그게 아니야, 새끼야, 나한테 한 네 짓거리들이 미안해서 똥져야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난 내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도 마음이었지만, 그 새끼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더 개 같았다. 개새끼(난 근데 이 욕을 이 사람한테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개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그 사람보다 나은 이 세상의 모든 개들에게) 18새끼, 똥질 새끼..... 언제부터가 나는 욕도, 미움도, 화도, 속에서 충분히 내지르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란 나로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힘들었다. 나에겐 분명 원수 이상의 놈은 있고, 그것도 아주 가까이 두고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사랑하라는 건지 헛갈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 교회십자가가 쓰러진 이후 나는 더 마음껏, 힘껏 그 새끼를 미워하고, 욕하고, 내 안에서 수백, 수 천 번도 더 찢어 죽이고, 말려죽이고, 씹어 죽였다. 미워해야하는 대상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힘을 키우고, 상처를 치유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 # 2 자동차 청소

그 사람의 지랄 발광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전혀 못하게 하는 나와는 정반대로 그 사람은 남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하도록 했다. 그래야 집을 비우고, 안전하게 그 짓거리를 할 테니까. 남동생은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했다.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버스는 이미 끊기는 시간이라 집에서 차를 가지고 태우러 가야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나를 태우고 가고 싶어 했다. 나는 집안일 해야 한다, 숙제 있다,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아예 작정을 했는지 화까지 내가며 동생을 데리러 가는 차에 나를 태웠다. 그것도 치마를 입으라고 했다. 느낌이 좋지 않다, 뭘 짓거리를 생각해냈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데리러 가는 길은 1시간이면 넉넉한 거리인데, 그는 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산길로 차를 몰았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고, 지나는 차도 거의 없는 산골짜기,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장소를 오래 전부터 눈여겨 봐둔 듯 익숙하게 찾아와 골짜기 한 모퉁이에 차를 댔다. 캄캄한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하려는 것일까?' 하는 오싹함이었다.

“산에서 바람 좀 쐬고 가자. 의자 좀 젖혀봐. 니가 하도 흥분을 못 하니까 여기서 하면 불안해서 흥분이 될 수도 있거든, 니가 흥분을 못 하니까 나도 잘 안 되고, 여기는 사람들도 지나갈지 모르고, 차도 지나갈지 모르니까.”

‘너 진짜 미친놈의 수준을 넘었구나!’

그 사람은 여기서 정말 그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해온 모양이다, 차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그 짓을 하려하다니, 그것도 딸을 아빠란 사람이.

그 사람은 보조석의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나보고 누우란다.

“여기 누워, 치마 올리고, 이런 데 올 때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치마 입어, 팬티 입지 말고”

나는 가만히 누워있고, 그 사람은 또 내 위에 올라와서 씹씹댄다. 자동차 천정에 얼룩이

보이고,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도 쌓여있는 먼지들이 보이고, 창문 옆에 달린 손잡이의 손때 자국들이 보인다. 그 사람은 아직도 씹씹거리며 내 위에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00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에는.

“아휴, 소리 좀 내봐, 이년아, 여기가 불편하네, 저기 뒤로 가서 누워봐.”

다시 뒷자리에 눕혀놓고 또 그 짓을 한다.

‘참 더운 여름이네, 에어컨 끄니까 너무 덥다. 아, 언제 끝나나.’

이럴 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없다. 힘들어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의 나.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그 짓을 할 수 있는 더러운 인형 정도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생의 학교에 도착해서 동생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걱정을 했다.

‘혹시 차 안에서 저 새끼가 쏟은 혀연 물 냄새가 나면 어찌지, 동생이 눈치 채면 어찌지?’

창문을 활짝 열고 더러운 냄새와 시간과 느낌을 날려보고자 애를 썼다. 바깥공기로 자동차를 청소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바람을 불어넣는다 해도 부족할 것 같다.

## # 3 보충수업

그 사람의 지랄 발광은 시도 때도 없어졌다.

왜 그날은 학교가 끝나고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학교 근처 여인숙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짓거리엔 눈이 확 돌아버린 사람처럼 학교에서 나온 나를 차에 태우자마자 학교 근처 시장 통에 있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여인숙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그 동네에는 내 친구네 엄마가 시장에서 밥집을 하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네 할머니가 길에서 장사도 하시는 곳이었다.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까 겁도 나고,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찌나 싫어 고개도 꼭 숙이고, 부끄러워 죽고만 싶었다. 허름한 여인숙 아주머니는 딱 보기에다 중학생처럼 보였을 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말한 마디 없이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했다. 그 사람과 아주머니는 당당한데, 나만 죄인처럼 고개를 꼭 숙이고 따라갔다.



“옷부터 벗어, 요즘 집에서 하기 어려워서 그래.”

그 사람은 꼭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지 안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같이 말한다. 빼 먹으면 안 되는 수업을 빼먹은 것 마냥. 그 말투에는 꼭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게 더 더럽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자 뒤로 옆드려봐, 아니 이렇게, 그래, 힘 빼, 좀 가만히 있어.”

“아- 아파, 아…….”

“좀 가만 있으래니까, 그렇게 굼은 똥도 나오는 구멍인데 이 정도 못 들어가겠어, 가만 있어봐, 좀”

“아, 진짜 아파, 아…….”

“에잇, 가만있어, 이년아, 힘 빼고”

그 날도 그 사람 뜻대로 안 되어 화도 내고, 괴롭히다가 대충 그 짓거리가 끝났던 것 같다. 그 일 후로 학교 근처 시장에 갔다가 여인숙 아주머니를 마주쳤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기억 못했지만 나는 너무도 또렷하게 그 얼굴을 기억하고 혼자 얼굴을 붉혔었다. 부끄럽고, 더럽고, 그 짓을 하는 아빠란 사람이나, 돈 좀 벌겠다고 어린 애 데리고 벌건 대낮에 여인숙 찾아오는 사람 받아주는 그 아주머니나 다 싫다.

그 사람의 발광發狂은 나를 더 발광發光하게 했다. 나는 이 삶을 가능하면 빨리, 안전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하게 키워갔다.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나는 그 사람이 목사인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었다.

‘이런 악한 상황이 변할 거라고 믿어요, 바뀌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내 기도의 전부였다. 100일씩 17번을 기도했다. 1700일 동안. 끊임없이, 숨 쉬는 시간의 대부분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았다.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꿈속에서까지도 혼자 울며 기도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싫어했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불안했던 모양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 세웠던 십자가가 땅

에 꼬꾸라지던 날을 기점으로 더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그 새끼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언제나 기절하거나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야했다.

내 속에 힘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 ■ 水の 한마디

나는 종교, 계층,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아버지, 목사인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나의 경험으로 인해 한 때 모든 목사들을, 아저씨들을 미친 듯이 싫어했다.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아저씨들과는 걸핏하면 싸우곤 했다.

‘목사 저것들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닐까?’

‘저 아저씨 왜 딸이랑 저렇게 팔짱을 끼고 다닌데 혹시 저 새끼도?’

마음의 소리들은 뜻하지 않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속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집을 나와 지내면서 교회 친구들과 집을 얻어 같이 살았다. 나는 힘들 때면 술을 양껏 마시고, 완전 뺨은 상태에서 집에 업혀오기도 했고, 그렇게 들어온 날은 울며불며 밤새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다. 그런 나를 친구들은 오랜 시간 사랑으로 섬겨주었다. 교회에서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집을 나와 만났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 같이 일하며 만난 사람들, 친구들 모두 나의 상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다.

나의 상처를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상처를 보는, 그런 눈.

그 눈이 나를 빛나게 했다.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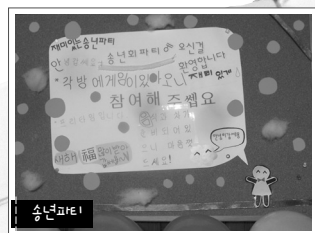
- 알도스 헉슬리(Aldous Huxley)

#### ■ [독자편지를 받습니다]

水の 이야기를 읽고, 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ksvrc@cho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60호에서는 水의 답변이 실릴지도 몰라요~



열린터 생각



12월

열린터 가족 송년회

해가 바뀌어서 일까요,  
열린터 식구들도 제법 많이 들고 나고 있습니다.  
3명의 식구가 독립, 이사를 가고  
1명의 식구가 늘어  
지금은 5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월

- 2007평가, 2008계획회의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관람
- 바리 독립

졸업과 입학처럼  
여기서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각자가 했을 다짐들을  
응원합니다.  
그곳까지 들리겠지요!

한해의 끝과 시작을 잇는 요즘,  
열린터도 마무리와 시작을 위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선생님들이 평가와 계획 회의에  
쫓기는 동안,  
열린터 식구들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  
반성이 들기도 하네요.

바쁜 가운데에도 함께 보았던 영화 <우생순>은  
모두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2월에 함께 배타고 산 넘어  
힘들게 참가했던 기름유출 방제사업 참가도  
잊기 힘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목소리 높여  
문제점을 성토했던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

## Diary 열린터 다이어리

good-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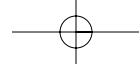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 열린터를 나가며...

안녕하세요.  
열린터에 처음 들어와서 지낸지가 벌써 1년이 넘어 퇴소할 때가 되었네요.  
열린터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여행도 가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웃고, 화내고, 떠들고, 모두 다 잊지 못할 겁니다.  
열린터에 있는 시간은 제 인생에 정말 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이곳에서 지냈던 제 모습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자, 거북, 혜옥 선생님. 그리고 영주, 토리.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열린터 생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루요.  
앞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해나가도록 노력할거예요.  
가끔 연락도 하고, 자주 찾아올게요.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8.2.맬매

[편집자주]

열린터 식구였던 맬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열린터를 나가면서 남긴 편지입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당당하게 독립을 꿈꾸는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맬매, 아자!



# 2008년 열림터 살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열림터 원장 사자

해마다 총회가 가까워지면 자료집에 실을 각 팀의 한해 사업 내용과 평가 그리고 다음 해의 사업 계획을 쓰게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열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바쁘게 한 해를 보냈건만 ‘뭘 했지?’ 하고 들여다보면 내보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든 살림이든 열림터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리고 지지와 제안을 받는 것이 또한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림터의 일상적인 일들은 여느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각자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인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찾아낼지 고민하는 모양들은 각자의 집에서 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가족도 아닌 것이 <열림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으면서 한 식구로 산다는 것입니다. 각자 나이 따라, 살아온 역사 따라, 원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도 같은 방에서 자야 하고,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열림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 묶여 살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고민이겠지요.

늘 그렇듯이 열림터의 첫 번째 목표는 열림터 가족에 대한 지원을 잘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나가고 난 후까지 개인마다 필요한 지원을 제 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소의뢰를 받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립을 할 때까지, 혹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까지 열림터는 그 사람의 생활공간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니, 돌이켜 기억했을 때 열림터가 그 시기의 그 이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률지원은 단순히 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피해를 되돌아보고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가해자와 가족의 경계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열림터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사회적응훈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열림터에 오기 전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열림터에 와서는 대부분 잘 해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만 생기면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열림터 활동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열림터에 온 이들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찾아내

열림터의 일상적인 일들은  
여느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가족도 아닌 것이 <열림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으면서 한 식구로 산다는 것입니다.  
각자 나이 따라, 살아온 역사 따라,  
원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도 같은 방에서 자야 하고,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열림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 묶여 살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고민이겠지요.

고, 그 힘을 키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반성폭력운동의 의미와 역사, 다른 여성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받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들을 올해에도 계속 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활동가와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께서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습지도와 특기지도에 애써주십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꾸준한 1:1 교육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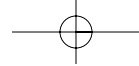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열림터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기부금은 부족한 생계비와 운영비, 학교생활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활동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올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친족성폭력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연구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매뉴얼을 만들면서, 친족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통념들이 경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영향들은 피해여성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폭력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합니다. 단기 계획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림터에서 일하는 저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열림터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주말은 물론 공휴일까지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3명의 활동가가 돌아오는 당직 근무와 식사 준비까지 담당해야 하는 여건들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리 저리 운영의 묘안을 짜내려고 고심 중입니다.

계획 세우면서 거북과 저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정신없이 하지 말고 차분히 해 보고 싶습니다.^-^





연재기획\_ 몸이야기 ① 의사소통하는 몸(57호) ② 주체적으로 증속되는 몸(58호) ③ 세상이 체현된 몸(59호)

## 지금 여기에서, 내 몸으로 세상을 바꾸다

◎ 성문화운동팀 키라

### 체현된 몸 (體現, embodied body)

‘체현(體現)’이라는 말은 좀 낯선 말이지요. ‘몸으로 현실화된다’ 혹은 ‘몸에 각인되어 나타나다’, 라는 말쯤으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몸이 몸이지, 몸이 현실화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몸’ 과는 반대 영역에 존재한다거나, 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판단, 결정, 의지’ 와 같은 개인의 행위들이 사실은 개인의 ‘몸’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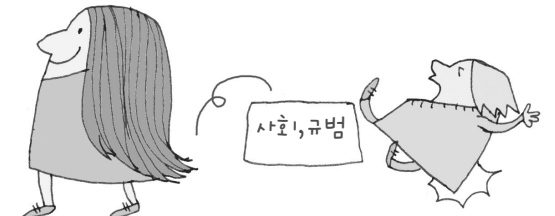
세상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동시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개인들의 변화를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지식과 그 지식 습득을 위한 공부를 독려함으로써 개인들을 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의식의 변화’ 를 통해 ‘깨우쳐’ 지지만, 다시 그것과 무관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변화라는 것이 의식/정신의 변화로만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순수한 ‘몸의 변화’ 로만 설명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사실 ‘순수한 의식’ 이나 ‘순수한 몸’ 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 역사를 가진 몸, 몸적인 의지 (mindful body)

사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고려하여 머리로 판단한 이후에 ‘그래, A보다는 B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더 좋구나!’ 라고 최종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오히려 ‘느낌’ 으로 결정됩니다. 느낌은 매우 ‘몸’ 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하철 승강장과 철로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게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선행을 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되죠.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고, 낯선 사람이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뎈 떨어졌을 때, 그것을 목격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뛰어들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떤 회로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일 테지요. 하지만 가까스로 타인의 목숨을 구하고 난 후, 목숨을 잃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난 글에서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물어야한다’ 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사실 가장 절실한 욕망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었지요. 내가 그렇게 욕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오늘은 이에 대해 <체현된 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illustrated by le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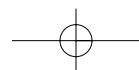
의 ‘선행’ 은 그 사람의 몸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아주 짧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쌓여있는 오랜 역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역사가 몸에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며 느꼈던 괴로움’,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으나 그 상황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희열’ ... 이런 느낌이 철저히 몸의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의지’ 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몸의 느낌’ 으로 추동되는 의지이지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해 보았거나, 혹은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지는 더 빠르거나 더 강하게 생산될 가능성을 만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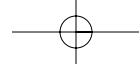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생각이 아니라,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이 몸에 붙은 ‘주체’ 가 그것을 끌어잡니다. 나의 인지적 판단과는 무관한 어떤 순간이 삶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 규범과 제도를 넘어서는 몸

몸의 능력은 늘 몸을 구속하려는 규범과 제도를 넘어섭니다. 몸은 변화무쌍한 변화를 겪는 ‘물질’ 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물질’ 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물질의 변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 몸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새로운 기술을 몸이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배우기 전에는 신기해 보이던 자전거 타기가 넘어지고 무릎이 바닥에 갈리는(!) 부상을 입으면서, 어느 순간 적당히 균형을 잡고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게 되는 것, 수영을 배우는 것,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 등, 모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느 순간’ 을 맞게 됩니다. 그 때에는 내 몸이 ‘새로운 무언가’ 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몸’ 이 변화하는 것이 진짜 ‘내’ 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별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별 규범은 많은 개인들의 몸에 익숙함에도





사회적 규범 안에 결코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몸의 물질성은 '규범'에 반대하는 활동의 지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 제도와 그 제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규범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들의 몸을 움직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삶을 발견하고 권투에 미쳐 직장도 그만두고 권투선수가 된 그녀의 변화는 보기만 해도 짜릿하지요. '여자로서 몸가짐을 조신하게 가져라' '권투선수라는 직업은,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성별 규범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상식'이지만, 개인의 몸에서 그 규범은 작동을 멈추거나, 비껴갑니다. 늘 변화하는 특성,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몸의 특징은 개인의 삶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 안에 결코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몸의 물질성은 '규범'에 반대하는 활동의 지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 제도와 그 제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규범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들의 몸을 움직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규범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하여 실행하는 개인들이 없다면 이러한 규범은 현실 세계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대 국가는 학교와 같은 곳에서 개인의 몸을 훈육하였지요. 국민 체조를 몸에 익혀서 '건강한 표준의 몸'에 개인을 익숙하게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의식을 통해(고개를 치켜들고 난 후, 손을 들어 가슴에 살짝 갖다 대는 아주 몸적인 의례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그에 대한 충성심까지 만들어냅니다. 선생님 앞에서 줄을 맞추어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는 연습을 통해 권위에 대한 복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주눅 든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몸을 훈련시키지만, 그것은 제도와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개인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효과를 낳지요. 오랜 훈육의 결과는 개인을 그 제도와 규범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국민의례'에 반대하는 개인들의 저항과 운동은 이러한 '주체의 획일화'에 대한 '개인들의 몸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내 몸의 변화 (transforming), 세계의 변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곧 몸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외부 세계를 다르게 인지하고, 타인과 다른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이는, 곧 한 사람이 체험하는 세계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하는 세계의 결이 더 섬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란 사실 개인의 '체험'으로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체험하는 세상이 정말 의미 있는 '세상'이지요.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을 자기 몸에 100% 각인시키고 그 규범대로 살고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야말로 '천상 여자'였던 한 여성이 다이어트 좀 하고 선을 보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근처에 있는 권투도장을 찾았습니다. 그 도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낮선 곳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밤길을 걷는 것에 공포를 느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성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에게 의미 있는 세상이란 '늘 익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대에서, 남성들이 없는' 시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여성의 세계는 그 여성의 몸, 딱 그만큼의 부피와 무게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몸은 변화합니다. 우연한 계기에 서점에서 접어든 김남희의 **스페인 산티아고 여행기,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 여자 농구 시합, 친한 친구의 죽음...** 예상하지 못

한 시점, 예상치 못한 삶의 고리에서 몸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규범에 제한되어 체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살아내면서 많은 개인들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요. 나도 모를, '어느 순간'은 모든 이들에게 다르게 찾아옵니다.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답답하고 관료적인 업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현명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경험을 갖게되면서 몸의 감수성과 결이 매우 유연하고 다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고집과 주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개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몸의 훈련이 개인 몸에 각인시킨 규범과 제도가 그만큼 강고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성별 규범이든 이성애 규범이든, 그 규범과 멀어지기 위해서 **낮선 영역으로 내 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성별 규범은 성차별, 성폭력 경험과 같은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각성되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별 규범이 불편하고, 그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때 규범 안의 좁은 공간 밖이 궁금해지지요. 내가 다른 곳으로 던져지는 순간, 나에게 익숙하던 그 세계는 이미 나의 뒤로 한참 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 연재를 마치며 | | | |

3회에 걸쳐 연재하던 <몸 이야기 :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몸으로 다시 읽기>가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의사소통이나 고통, 열망과 같은 주제를 '몸'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보았던 이번 기획 연재는 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통합적인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시도였지요. 우리 모두는 몸이 있지만, 몸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제도와 규범들이 개인들의 몸을 통제하고 구획 짓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즐겁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환기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의 자유와 해방이 시작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interviewee\_ 정경자 님  
◎ interviewer\_ 성문화운동팀 오매

### 다시 뵙는 정경자 선생님!

이번호에서 만날 사람은?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호주의 여성운동”이라는 논문으로 상담소 운동에서 지대한 성찰의 막을 열어주신 분, 현재 호주 시드니 UTS 대학의 Politics and Advocacy 학과 교수인, 바로 정경자 선생님입니다. 상담소 2층 사무실에서는 호탕한 웃음과 활동가들의 눈을 뚫어보며 손을 흔드는 특유의 악수법으로 유명한 신 분. 한국성폭력상담소 초창기 총무이기도 하셨던 정경자 선생님을 1월 서울의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눔터 독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상담소 초창기 총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죠?**

인생에서 잘한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단체를 만들어본 경험이에요. 내 궁지와 힘의 원천이 상담소죠.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자 셋 있으면 뭐든지 하지!” 생각합니다. 전 대학에서 운동도 안했었고 여성잡지 기사를 하다가 여성학을 하게 됐는데, 세계관도 아니었고 그저 전도유망한 분야라는 계산으로! 그러다가 상담소 통해서 여성운동에 눈뜨게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유행도 있지만, 상담소에서 만난 사건들과 이야기, 생존자와 만나는 경험은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각인되는 것 같아요.

**상담소 초창기 시절, 가장 즐거웠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집 얻으려 다녔던 일! 최영애 선생님(당시 소장)과 리산(이미경 현 소장)과 함께 지하실 방 같은 곳을 보러 다녔죠. 우리를 종교단체인 줄 알더라구. 사무실 생기고 나서는 전화, 컴퓨터 하나하나 다 얻어왔어요. 힘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애. 위계도 없었고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곳. 나는 대학에서 운동도 안했고, 말 멋있게 하는 사람보면 주눅드는 콤플렉스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그런 곳이었으니 너무 좋았지. 처음 상담소 만들고 우리가 같이 상담소를 홍보해야했으니 최영애 선생님 머리고 예쁜 옷 같이 고르러 다니고 그런 것도 신났던 기억이네요.

**논문 이야기기도 해볼게요. “반성폭력 상담소 운동의 제도화” 논문은 우리 상담소의 미래전망 모색에도 매우 중요한 논의점을 주고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제도화와 비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제도화에 대한 염려를 시작했어요. 병렬 비교할 순 없지만, 호주는 70년대 친여성적인 정부를 만나 여성운동이 주창한 프로그램들 정부가 만들어주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거 여성운동의 내용과 인적자원이 포섭되고, 그 결과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운동과 정부가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운동은 약화되고 정부 안에서만 커져버리니까 협상력과 제언력을 잃는 것이죠. 성폭력 센터 등이 국공립시설로 된 걸 제도화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도화의 특징은 세분화·전문화 시키는 것이에요. 성폭력, 가정폭력, 어린이, 이민자 시설... 통합된 연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연대하지 못하면 힘이 없게 되고요. 여성운동의 구심점, 여성운동을 지켜낼 힘이 없다면 정부 정책이야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게 되겠죠.

**한국의 상담소, 여성운동이 제도화의 뒤통수에 대항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모색을 해야한다고 보세요?**

한국에는 여전히 훌륭한 활동가들이 NGO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정체성identity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정부는 숫자, 양적인 것을 중시하지만, 제도의 변화나 힘주기 empowerment 같은 것은 양화시킬 수 없죠. 운동성 없는 전문성은 속빈 강정이에요. 재정자립도 중요해요. 정부 지원이나 프로젝트를 30% 까지만 하겠다고 상한선을 두고 점점 줄여가려는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또 회원들이 늘어가는 것. 또, 여성운동의 개별적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연대의 구심을 보존하면서, 급진성을 놓지 않는 것. 제도화에 포섭된 영역이 있다면 새로운 조직들도 생겨나야 합니다. 여성운동 안에서 최대한 급진성향을 유지하는 새로운 조직들. 이러한 보완들이 끊임없이 탄생해야 해요. 저도 한국에서 급진적인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실제 여성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호주에서 느낀 거요? 음... 호주의 여성운동은 한국에 비해서 투쟁적이지도 않고, 아젠다도 그렇게 비판적이지도 않지만~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은 여성주의의 문화가 있어요. 여성단체 활동가들도 자부심이 무척 강해요. 우리는 대안적 문화의 소비자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는 기운. 일주일에 한번씩 산행, 도보여행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무척 충실하고, 모임을 할 때도 페미니스트 북카페에서 만나고, 채식주의자가 많고, 커피도 꼭 공정무역fair-trading 커피를 마시고, 단체들 회의에 가봐도 20대부터 왕할머니까지 보수적이지 않고 편견없이 이야기하고, 노조가 파업할 때 단체들도 연대파업하고. 조직이 있으면 그 속에서 일상적인 문화가 어떤가를 매우 중시해요. 자원활동가에 대해서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여성들이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무

보수, 저임금으로 쉽게 일하게 되는 구조를 경계하면서 임금없이 일하는 자원활동가를 거의 두지 않으려는 것도 있어요.

**호주 운동가들의 사는 이야기, 흥미진진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소 활동가들과 회원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9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사회는 운동도 역시 성취지향적이었잖아요? 운동자체도 그렇고 활동가들도 피해해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아진 일을 겪으면서 치유,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회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치유가 필요해요, 자신을 보살피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상담소 모임에서 junk food(칼로리 높으나 영양가 낮은 인스턴트 식품 -\_-;) 있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운동사회가 더 유기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정의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호주에 가서 우리 상담소가 집이 있고 몇 명이 상근하고 자랑했지만~ 내 안의 성취지향성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여성주의 윤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놓지 말아야지요. 저는 대학에서 정치와 정책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언제나 운동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자주 만남시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멋진 활약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자~

정경자 선생님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메일을! kyungja\_jung@yahoo.com.au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다시 뵙는 정경자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

# 사이코드라마, 마음의 극장

◎ 여성주의상담팀 이산



사이코드라마는 우리말로 '마음-몸(똥)극'입니다.  
(중략) 한마디로 똥은 일상에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오히려 숨기고 말 못하고 감춰야했던 우리들 마음 속 진실들을  
그 어떤 비난이나 평가의 위험 없이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극장입니다.  
출처 : 한국사이코드라마연구원 홈페이지 [www.psychodrama.co.kr](http://www.psychodrama.co.kr)

●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사이코드라마연구원  
<http://www.psychodrama.co.kr>  
한국사이코드라마 · 소시오드라마학회  
<http://www.kpsychodrama.co.kr>

‘사이코드라마’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용감히 초급 교육을 신청해서 대전으로 짐을 싸들고 내려가던 날이 떠오른다. 나의 사이코드라마 참여 경험은 3회 성폭력피해 생존자 말하기캠프에서 한 번 세션에 참가한 뒤, 학교에서 열렸던 성폭력피해생존자 워크샵에서 참가자들끼리 역할극을 해본 것이 전부였다. 그 두 번의 경험이 나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함께 기운을 모아 표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았던 장면들이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었다.

2박 3일 동안 첫 교육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 남은 것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과 통통 부은 눈, 잠겨버린 목이었다. 나는 드라마 세션이 진행될 때마다 울었다.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었다. 주인공이 겪은 일의 내용이 슬프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온 힘을 다해 표현하는 장면 자체가 가슴을 두드렸다.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나의 경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기억을 몸으로 재현할 때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해보였고, 집단원들이 어떤 이야기도 기꺼이 듣고 함께

표현할 것이라는 믿음 역시 큰 힘을 더했다.

초급 교육 중 한 세션에 주인공으로 참여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의 사건에 얽힌 여러 감정을 분리하여 그 중 하나의 감정에 에너지를 쏟아보았다.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했다. 큰 소리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내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집단의 보조자들이 역할을 맡아 나와 대화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나는 점점 내 몸에 얽혀있던 기억을 꺼낼 수 있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 판단해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였다. ‘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이 보여주었다.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해본 뒤의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게 조금씩 변화해갔다. 드라마 안에서 터뜨렸던 문제가 갑자기 호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에서의 나의 반응과 생각은 분명 달라져갔다. 이후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디렉터 교육을 마친 지금의 나는 잠시 좌절에 빠져있다. 집단의 한 사람으로 세션에 참여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나의 모습들이 디렉팅 실습을 했을 때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디렉터로 참여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에게 어떤 규범을 씌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는 실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본 뒤, 내가 정말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온 힘을 다해 표현할 수 있게 돕는 디렉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코드라마의 무대는 나를 흔들고 변화시킨다.

짧은 기간 동안 사이코드라마를 배우면서, 사이코드라마는 ‘땀 몸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디렉터 선생님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예절과 규범,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 도덕적 판단. 사이코드라마는 이런 모든 마음의 옷을 벗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다. 살아온 시간 동안 계속 껴입고 덧붙여 껴매왔던 마음의 옷을 벗는 과정은 어렵다. 웬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그 옷을 벗고 몸을 움직였을 때 만나는 자유롭고 후련한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사이코드라마 무대에 간다.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8년(나눔터 59호-62호)에는 사회과학을 함께 공부하는 소모임 '토닥'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 그리고 고백성사

◎ '토닥' 식구 가온



“여성이 남성의 60%를 번다.”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도 늘 뜨거운 감자이다. 지금은 절판되어 도서관에서 빌려보아야 하는 이 책은 1994년 한국에서 가정학 시리즈로 번역, 출판된 책이다. 가정경제학과 여성해방론적인 관점,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이 책을 읽고 토닥은 이 세 가지 관점이 어떻게 여성노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점에서 우리에게 불협화음으로 들리는지 이야기했다.

먼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인 ‘모든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전제 자체가 우리 삶의 다양한 행동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로가 만나기 위해, 상담을 하기 위해, 돌보기 위해, 아니면 단지 같이 놀기 위해 행동하는 우리와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설명이 그저 재미있는 그래프와 수치의 놀이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 인류역사에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함께함, 돌봄, 즐거움 등을 위한 행동들, 즉 화폐수치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위와 같은 경제학적 전제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의한 직종분리, ‘여성적 직업’을 선택하도록 주어지는 사회적 차별,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감소시키는 노동시장의 차별, 여성의 시장노동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의 연금제도, 세제, 복지제도, 남성의 가사노동 면제 등의 문제는 이 글이 씌어진 1980년대 미국과 현재의 한국사회, 유럽 등 산업사회가 된 대다수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차별의 현실임을 되짚을 수 있었다.

이 책의 80년대 미국 통계에서 업데이트된 최근 통계를 원했던 우리가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지표들은 다음과 같았다. 주부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하루에 3시간 28분이며, 남편은 32분.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주부들은 7.9%, 그러나 시장노동(수입노동)시간은 여성이 하루 중 5시간 14분, 남성은 6시간 34분. 남성대비 여성 상용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39.8%, 정규직 여성의 10명중 6명이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실.

세미나 중에 나누었던 일상에서 겪는 뉴스들은 다음과 같았다. 친구의 남편이 아기 보기 싫어 야근한다고 해놓고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고 있더라, 경력 5년차의 여성인 친구가 신입남성사원보다 더 전망 없는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더라, 김모 여성 아나운서는 요리와 아기보기를 못해서 남편이 거의 다 하더라는 등의 생생한 뉴스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들의 고백성사. “내 안에 폭력성 있다, 내 안에 가부장제 있다, 내 안에 가족주의 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여성주의를 읽고 실천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희망을 나누었다. 어떻게 〈여성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에서 고백성사(?)로까지 우리의 세미나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3월 8일 여성의 날 〈노동과 페미니즘〉을 들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여, 잘 먹고 잘 살자. 만세!

## 젠더와 인종, 美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 본 상담소 국제협력자문위원 \_ 니콜라 존스, 폴 프레슬러\*

2008년 선거에서 인종과 젠더는 ‘공공연한 비밀의제(elephant in the room)’가 되었다. 이 의제는 후보들의 약력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의미에서부터 미국인들의 지지 구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 의제는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벌이는 논쟁의 배경이 되며, 신문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논객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자신들의 인종이나 젠더를 내세우려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배럭 오바마(Barak Obama, 이하 오바마)는 미국에서 유색인으로서 성장한 경험이 그의 입후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비슷하게, 힐러리 로담 클린턴<sup>2)</sup>(Hillary Rodham Clinton, 이하 클린턴) 역시 때로는 여성들에게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지난 20년 간 워싱턴에서 쌓은 경험에 기반한 강력한 리더십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가 답하고 싶어 하는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종과 젠더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이 변수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민주당이 이번 2008년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흑인<sup>3)</sup>들과 여성들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지난 50년 간 성평등과 시민권을 위한 싸움을 서서히 이끌어온 것은 민주당이었다. 지지율은 시시각각 변해 왔지만, 민주당이 지향해 온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정치가 모두의 평등을 위한 최선의 기회 앞에 당면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하자면, 결국 누가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것이냐 보다 둘 중 하나가(혹은 더 잘 되어, 둘 다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누가 이기느냐에 상관없이, 여성이나 흑인의 승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며 미국 정치의

1) Barack Hussein Obama

2007년 2월 제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2008년 3월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에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미국 중앙정치무대에서 이라크전에 강력하게 반대한 유일한 개혁적 아프리카계 정치으로서 젊은층과 남성 및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961년 8월 4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다.

2)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2007년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2008년 대선 후보로 경선하고 있는 뉴욕 주 상원의원.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출생하였고, 배우자는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의 여성회원 회장을 지냈으며 1993년에는 파스트레이디로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000년 뉴욕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예산위원회, 국방위원회, 건강·교육·노동·연금 위원회 등에서 일했으며, 2002년 10월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

3) 원문에는 African American으로 되어 있으나, 상용어인 ‘흑인’으로 번역함.

\* 니콜라 존스 Nicola Jones, 폴 프레슬러 Paul Presler

니콜라는 현재 영국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연구원(Research fellow)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상담소의 국제협력자문위원입니다. 이 원고는 니콜라, 폴 부부가 함께 쓴 것입니다.



해외 통신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를 통틀어 여성과 소수자들의 수는 너무 적으며, 특히 여성은 권력으로부터 더욱 소외된다. 예를 들면, 흑인은 어림잡아 미국 인구의 16%에 이르지 만 국회 의석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불균형은 훨씬 심하다. 최근의 선거들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은 아직 13%일 뿐이다. 그러나 11월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백악관은 더 이상 백인 남성들의 안전지대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낸시 펠로 시<sup>4)</sup>가 미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국회의 장급 지위 전반에 흑인들의 진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클린턴이나 오바마의 승리는 미국 내 정치적 평등의 일진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혁명이 될 것이다.

공약을 살펴보면, 클린턴과 오바마가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지를 유권자들이 알기는 어려운 듯하다. 경제적 특권 타파를 역설하는 인민주의에 뚜렷하게 기반하고 있는 존 에드워즈<sup>5)</sup>와 달리,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중도적 민주당원”의 위치에 선다. 둘 다 여성, 흑인, 또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넓은 의미의 평등에 대해서 확고히 지지한다. 둘 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인정해 줄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며, 사법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됐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향상이 됐든, 둘 다 어떤 식의 재분배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둘 다 환경보호와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내 걸 것이다. 지난 9년 간 이어진 공화당의 실정(失政)을 만회하기 위해 각각 더욱 회유적인 외교 정책을 내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주의자와 흑인 양측이 집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그러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의 누군가는 내년에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 전략의 차원에서 보자면, 인종과 젠더는 몇몇 측면에서 주요한 결정력을 가진다.

후보들이 매 연설마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종과 젠더가 미국 유권자들이 갈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화당이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정체성을 골자로 하여 세워진 반면, 민주당은 흑인들과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유권자들이 양측의 가장 큰 득표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각자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양측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민주당 후보였던 Kerry<sup>6)</sup>는 흑인 표의 88%를 얻었지만 백인 표는 41%(히스패닉 계는 53%)밖에 얻지 못했다. 지난 4년 간 젠더 간의 차이가 꽤 좁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 유권자로부터 51%의 지지를 받은 데 비해, 남성 유권자로부터는 여전히 44%의 지지만을 받았던 바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도 놀랄 것 없이 오바마는 흑인들의 표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 클린턴

4) Nancy Patricia D'Alesandro Pelosi  
1940년 3월 26일 출생한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2007년 미국의 60대 하원의장에 취임하였다. 미국에서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에 취임하게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이 되었다.

5) Johnny Reid Edwards  
남부 노동계층 출신 정치인으로, 2008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8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해 미국이 부와 특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두 개의 미국(Two Americas)'으로 갈라져 있다며 '통합'을 역설하고 교육 의료보험 사회보장 문제에 중점을 뒀던 바 있다. 1953년 6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네카에서 직물공장 노동자 아버지와 우체국 직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6) John Forbes Kerry  
2004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1972년 28세에 하원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방 검사로 재임하다가 1984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4선 연속 당선되었다. 1966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해군장교에 지원했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전역한 후에는 반전운동에 뛰어든 바 있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자유주의 성향의 케리는 1943년 12월 11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외교관인 아버지와 출판 재벌 포브스가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은 여성 표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후보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들은 여성과 흑인에게서 많은 표를 받는 것에 기뻐하면서,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은 때로 할머니들과 딸들에 대해 즐거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그저 “여성 후보”로만 위치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오바마의 경우 확실히 자기 자신을 흑인 후보로만 위치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두 후보들보다 인종과 젠더라는 의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 예측은 별 소용이 없는 듯하다. 존 맥케인은 일전의 부진에서 빠져나와 지난 12월에 있었던 공화당 초기 예비선거에서 표를 휩쓸었다. 처음에는 앞서갔던 클린턴은 아이오와에서 막혔고 현재는 오바마에게 간발의 차로 뒤져 있다. 다만, 오바마는 2월 초의 경향을 볼 때 “부동층(浮動層)”의 표를 확보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왜 클린턴이 초반 승부에서 기대하게 했던 것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야기한다. 젠더는 백인 남성이 클린턴이 아닌 오바마를 지지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지점이 되고 있다. 여성, 특히 힘 있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전통적 선입견이 바로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는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클린턴이 동조했던 것을 많은 민주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흑자는 물론 이 상황을 여성들이 정치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가로막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클린턴의 입지는 분명 어느 정도 그녀가 국가안보문제에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에 의거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뉴욕의 걸출한 여성주의자 100인 모임은 최근 오바마의 반전反戰 입장과 ‘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유로 클린턴이 아닌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상황이다.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예견하기에는 아직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젠더라는 변수가 승리를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확실하다. 젊은 유권자들 대다수가 오바마를 가장 적절한 변화의 대리인으로 지지하고, 이에 따라 ‘나이’가 중요한 갈림의 지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녀가 누가됐든 여성과 흑인 모두를 위한 평등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민주당 후보의 성공이 될 것이다.

번역 아름

- 영어 원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자료실 > 나눔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통신 - 젠더와 인종, 美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여성가족부 통폐합 저지 활동**

지난 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폐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 및 처벌 시정 업무를 복지 업무와 혼동하고 무리하게 통합하려 하는 인수위의 출숙적인 개편안에 경악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선거 전에는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히려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더니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꾼 이 당선자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 무엇보다 그간 여성가족부가 있어 가능했던 여러 활동과 지원을 남성중심적 여론에 실어 성급하게 중단하고 폐기하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여성 인권 후퇴가 무척 걱정됩니다. 이에 우리 상담소는 다른 여성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 활동을 벌였으며, 여러번의 난항과 정치적 협상 끝에 여성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 1/3 여가부 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 참여 @ 프레스센터
- 1/7 여가부 조직개편 관련 논의 참여 @ 여성연합
- 1/9 여가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 참여 @ 대통령직인수위 앞
- 1/16 여가부 존치약속 어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참여 @ 대통령직인수위 앞
- 1/22 여가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 참여 @ 프레스센터
- 1/22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참여 @ 참여연대
- 1/24 통합민주당 주최, 정부조직개편 분야별(여성정책추진기구 관련) 토론회 참석(토론자:이미경 소장) @국회도서관 대강당
- 1/29 국회여성가족위원회 1차 회의 방청 @ 국회 본청
- 2/1 여가부 통폐합반대 기자회견 참여 @ 국회 앞
- 2/4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차 회의 방청 @ 국회 본청
- 2/15 여가부 통폐합 반대 1인 시위 @ 국회 앞
- 2/20 (여성부 축소, 존치 어원) [이명박 정부, 어디로?] 토론회 참석 (토론자 : 이윤상 부소장)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반차별공동행동 활동**

지난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는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7개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화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들이 빠져있습니다. 이후의 대응으로 반차별공동행동이 구성되었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뿐 아니라 이후 장기적 반차별 운동의 지향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시작된 릴레이워크샵에서는 서로 다른 이슈를 가진 각각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향과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하며 연대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단체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연대와 반차별 운동을 상상하다 보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더 행복한 너와 나,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떤 재미난 활동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 1/4 차별금지법 공청회 참석 @ 국가인권위원회
- 1/23 반차별공동행동 릴레이워크샵 1차 참석 @ 향린교회 (발제: 기독교인 연대, 임시페지국본,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1/26 126 세계공동행동의날 반차별 선전전 참석 @ 서울역 광장 (1/28 차별금지법 발의)
- 1/29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개정안 부결을 위한 기자회견 참여 @ 국회 주변
- 1/29 차별금지법 찬반 기독교 대토론회 참석 @ 국회도서관 소강당
- 1/29 반차별영화상영회 [제9편 찬반투표] 참여 @ 인디스페이스
- 1/31 반차별공동행동 릴레이워크샵 2차 참석 @ 향린교회 (발제: 카노스, 나누라, 인권운동사랑방)
- 2/14 반차별공동행동 릴레이워크샵 3차 참석 @ 향린교회 (발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언니네트웍스)
- 2/18-20 반차별영화상영회 [다함께 차차차] 참여 @ 인디스페이스
- 2/28 반차별공동행동 릴레이워크샵 4차 참석 @ 향린교회 (발제: 수유너머, 무지개행동, 장애여성공감)
- 3/8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 여성 체험온도 38℃, 후끈 시민난장 진행

**낙태, 이제는 토론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관련 활동**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태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였다. 우리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이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자문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2월 13일에는 연구결과 마련된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허용 사유 중 부모의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의 사유를 삭제하고 임신 초반에 상담결과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회적 적응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자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이후, 매스컴 등을 통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낙태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우리 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생존자들 중 피해로 인상을 하고서도 낙태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여성의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삶이 허울뿐인 '생명존중'과 갖는 거리에 대하여 토론과 고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7/12/21, 28 3차, 4차 전문가 회의 참석
- 2008/1/20 전문가 워크숍 참석
- 2/13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킹 공청회 참석
- 2/19 세계일보 '오피니언'기고

**이랜드사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홈버, 뉴요에서 하루 8시간을 고작 서서 일하는 개신대의 아주머니들은 한달에 80만원 남짓 받고 일하면서 언제 쉴지 몰라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랜드 기업은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자,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이분들을 거기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여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1/17 이랜드사태 해결을 위한 연대시위 참여 @ 대통령직인수위 앞
- 1/25 설날맞이 이랜드 특별블랙아웃 선포식 참여 @ 명동 WAU 앞
- 2/2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문화제 : 이번 설에도 우리는 탄 데 가요 @ 시흥 홈버 앞

**군가산점제 부활 저지 활동**

1999년도에 이미 워킹 결정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될 위험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운동 끝에 부활안이 17대 국회에 계류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신임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 제도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어 18대 국회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2/12 군가산점 부활안 부결을 위한 기자회견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방청 (→ 군가산점제 부활안 가결)
- 2/19 국회 법사위원회 방청 (→ 제2소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 중)

**스포츠토토 여성 성폭력 관련 대응 활동**

한 방송사의 징중취체로 알려진 스포츠토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대책회의에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2/15 문화관광부,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문제 전문가 간담회 참석
- 2/2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문제 긴급 간담회 참석

**KSVRC 20주년 로드맵을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비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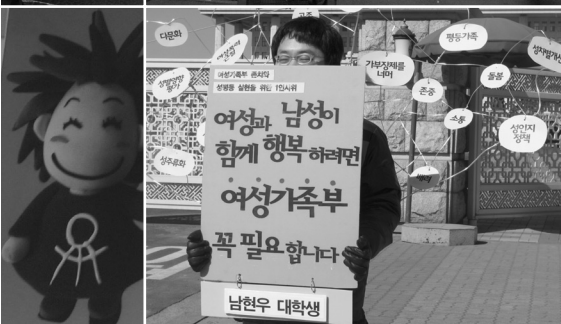
우리 상담소는 지난 2년 간의 미래전망 활동 성과를 집약하고,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점검하고 활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비전 워크숍 시간만큼은 마음을 모아 자신과 조직의 활동을 성찰하고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원:한국여성재단)

- 2/12 1차사: 시민운동, 좌표찾기(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허승창)
- 2/26 2차사: 셉트 리더십(리더십담당장성연 소장 주최)
- 3/4 3차사: 팀 리더십(리더십담당장성연 소장 주최)

**UN 보편적 정례 보고서 및 사회권 NGO 보고서 집필 활동**

우리 상담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보편적정례보고서(한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상태에 대한 총괄적 보고서) 심의와 올 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권 보고서 심의에 대비해 NGO 보고서 집필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정례보고서는 지난 1월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인 Virginia Bras Gomes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NGO보고서 작성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 1/25 유엔 NGO 보편적정례보고서 제출
- 3/10 Virginia Bras Gomes/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과 NGO단체 간담회 참석



**12.15 반성폭력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

2007년의 반성폭력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 이날 많은 분들께서 종로5가 비어할레를 찾아 함께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담소가 오가는 가운데 이대 풍물패 '어우리의' 숙시원한 공연,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팀 '날자의' 박력 있는 공연, 스윙시스터즈의 흥겨운 공연과 특별한 경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21,28/1.8 평가회의 / 계획회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본 상담소 활동가들의 2007년 평가회의와 2008년 계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신과 서로의 활동을 함께 살펴주며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기 위해 머리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니다.

**1.17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인권단체인 간담회**

2008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침해구제본부가 2008년 정책으로 수립한 안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무리스러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정책과 사업 계획에 대해 통괄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니다.

**1.22 이사회**

총회에 부의할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인권활동가 비상회의**

2008년 1월 22일, 향린교회에서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인권운동 진영의 대응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수하는 것이, 단지 국가기관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을 사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후 명동성당 천막 농성, 독립문에서의 기습 기자회견 등을 이후 투쟁 계획을 결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니다.

**1.24 제 17차 정기총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회원들이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총회가 2008년 1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열린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운 토론 분위기와 화기애애한 웃음이 가득했던 내일 있는 총회였습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참 든든했고, 날 카로운 비판에 다시 한 번 더욱 치열한 고민과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8 서울시의 갑작스런 지원공모에 대한 서울시 여성정책팀 항의문**

지난 1월 21일, 서울시는 2008년부터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공모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서울여성전화 등 8개 상담소에서는 1월 28일 서울시 담당자를 면담하고,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었음을 밝히며 2008년 예산지원계획을 1월에도 공모한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평가기준과 방법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정부가 예산지원을 이유로 NGO의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2.14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대응 모임**

작년 한해동안 한국여성민우회와 우리 상담소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을 올해부터는 서울여성전화, 용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여성장애인연합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1) 작년에 시행된 정부의 시설편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기준, 내용과 범위, 방법, 결과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정리하고, (2) 현재 계획되고 있는 행정성안명과 관련하여 상담일지 등이 중립적에 아래 정리되는 문제제기를 논의하고, (3)협의회의 사단법인화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맞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추진보다 우리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누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해 지난 2월 22일 협의회 총회에서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2.22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여성인권 존중 디딤돌, 걸림돌> 발표 및 시상**

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작년 한해동안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사지까지 성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친 전반기경찰청 여성기동대를 비롯한 7개팀의 디딤돌과, 솔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대법관 3명 등 총 7팀의 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상담소는 4년전부터 감시단의 사무국을 맡아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책임상담원인 토리 선생님이 사무국에서 실무를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2.27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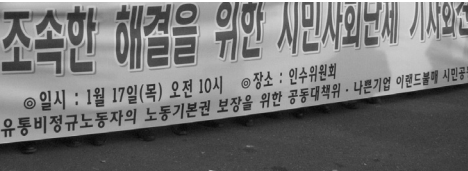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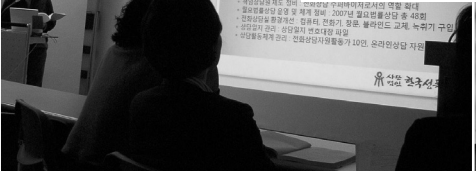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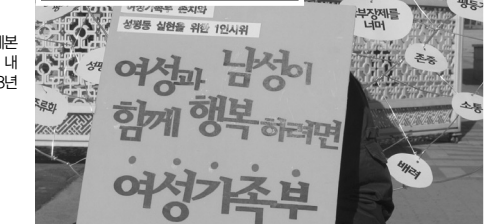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의 대우하 계획을 반대하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 연대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운송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우하 계획이 하루 빨리 백지화되기를 바랍니다.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참여**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100주년을 맞아 대체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서울에서도 유관기관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세계여성의날 100주년 기념 3.8여성축제조직위원회에서 기획한 <여성, 새로운 공동체를 열자>라는 행사와 반차별기획단에서 준비한 <체험온도 38℃, 반차별로 후끈> 시민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반차별 행사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우리들의 구호를 담은 피켓팅, 스탠스, 고무줄놀이, 줄넘기 등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향린교회 여성소모임에서 반차별노래를 멋진 기타 반주와 함께 불러주셨고, 장애여성공감에서는 휠체어장애 여성들의 피로모임을 선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는 100주년 기념 조직위가 이끄는 멋진 퍼레이드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3.13 이명박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여성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우리 상담소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뜨거운 축제, 함께한 여러분에게 반.한.날!

2007년 12월 15일

종로5가 비어할레

열렸습니다!

## ‘반성폭력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

‘반성폭력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은 우리 상담소에서 매년 진행해 온 ‘일일호프’를 2006년에 새로이 명명하면서, 주로 감칠맛 나게 즐겨 ‘반한날’이라고 부르곤 하는 상담소 식구들의 축제입니다. 대대로 맛난 먹거리와 멋진 볼거리를 제공해 온 상담소표 일일호프의 명맥을 이어 올해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한마당이 펼쳐졌지요. 이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성폭력 서포터즈’로서 행사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 뜨거운 특별후원 행사

2006년에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의류바자회에 이어 올해에는 특별히 기부 물품으로 이루어진 ‘반한 SHOP’과 경매가 열렸는데요, 서포터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이겨주셨던 내어 주신 물품 기부자 여러분께도,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번쩍 들어 경매의 열

기를 높여주신 참여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릴 뿐입니다.

### 멋진 문화공연

이대 풍물패 ‘어우리’가 속시원한 풍물놀이를 보여주었고요,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팀 ‘날자’가 박력 있는 시범? 퍼포먼스?를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니들의 대단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또 스윙시스터즈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귀여운(^^) 지터벅 단체공연에 이어 스윙댄스의 진수라고들 하는 린디홉, 그중에서도 패스트린디홉 공연이 이어져 너무나 흥겨운 몇몇은 눈을 휘둥그레 ~ 뜨고 무대 가까이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으신 분은 바로 인디뮤지션 시와 님! 통기타를 메고 따뜻하고도 감동적인 노래를 해 주셨습니다. 요새 홍대근처에서 활발히 공연을 하고 계시다니, 노래 들으러 가야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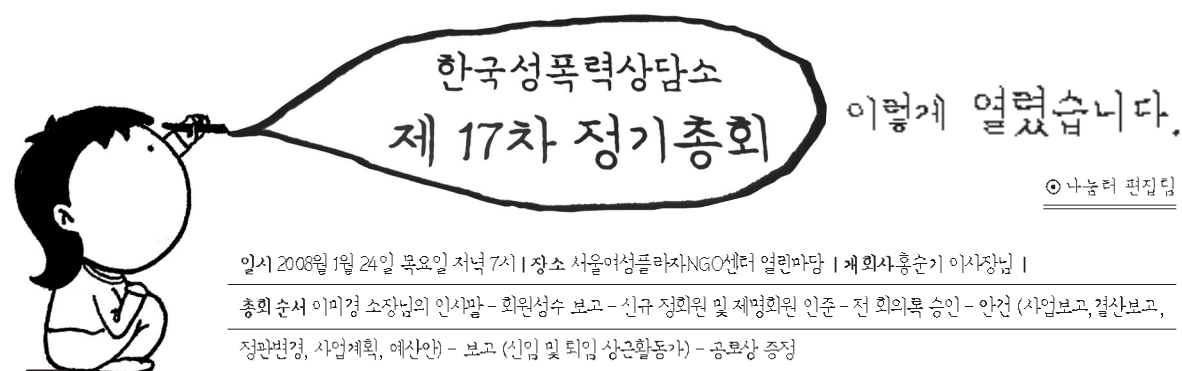
님의 화끈한 공연! 긴 행사장 구조 탓에 가운데에 어중간히 배치된 무대 위치의 난점은 아랑곳 없이 우리 모두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 주셨던 지현 님, 멋졌어요~! (이밖에도 무대에서, 또 곳곳의 신청인들 앞에서 노래를 선사한 활동가 오매, 키라, 이산의 공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ㅎㅎㅎ)

### 매력포인트! 타로 점 부스

타로텔러 어지 님과 이채 님의 활약으로 쉴 새 없는 부스를 보면서, 필자는 머뭇거리다가 아쉽게도 기회를 놓쳤으니, 내년 반한날에는 꼭! 타로 점을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날 발걸음해 주신 여러 분들,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 느끼는 상담소 식구들의 뜨거운 사랑은, 활동가들에게는 정말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못 오셨다고요? 그럼, 내년에 봐요!^^

◎ 나눔터 편집팀



회원 여러분 모두 귀기울여 저희의 보고를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승인 절차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져서 다함께 머리를 싸매고 진지한 토론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결국 총회는 예상했던 시간을 지나 9시 반을 훌쩍 넘겼지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의사를 표현해 주신 정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 뿐 아니라 화기애애한 웃음과 정다운 인사도 오고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얼굴과 상담소를 자주 찾아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의 익숙한 얼굴까지... 모두 밝게 빛나며 오랜만의 회동을 즐겨워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 역할’ 씩 맡은 활동가들은 살짝 긴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림터의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예산 보고를 맡은 열림터 원장 사자는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이 많이 됐터랬는지, 열린마당 문 밖에서 홀로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긴장은 훌훌 털고,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잘 진행했지요. 사자, 멋졌어요! ^^

이날, 빼놓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화제는, 지난 반한날(반성폭력서포터즈의 한해보내기 날, 상담소 일일호프)에 데뷔^^하여 큰 호응을 받았던 활동가 오매와 키라의 앵콜 공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박웃음을 짓기도, 배꼽을 잡기도 하면서 ‘푹푹한’ 이들의 공연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놓치신 분들, 아까워요~~!

또 이 날은 그간 고마웠던 분들께 공로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열림터에서 청소년들의 공부를 도와주신 문구미정 선생님, 열림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앞장서 주신 정진옥 선생님, 오랜 기간 정성을 담아 이메일상담을 해 주신 두나 선생님, 생존자의 힘을 멋지게 보여주신 데이지 님, 그리고 말하기를 통해 뜨거운 용기와 삶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2007년 말하기대회 참여자 여러분께서 올해의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공로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살짝 눈물이 날 뻔한 사람도 있다는 후문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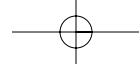
이렇게 총회를 끝마치고,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이후에는 신나는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빈 정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 여러분, 내년 총회에서 만나요~!



사업 review \_ 제17차 정기총회, 이렇게 열렸습니다!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스스로 나침반 찾기  
숨은 나침반 찾기

◎ 열림터 활동가 거북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매뉴얼 발간(이하 나침반)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현 열림터 활동가와 여성학자, 심리상담전문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아이템을 정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9월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경우(친권자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청소년을 청소년 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림터>와 같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쉼터에서도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상담 및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단체나 쉼터 등에서는 가출이나 왕따, 교내 폭력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적절히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나침반**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친족성폭력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을, 2부에서는 친족성폭력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초기상담을 위한 필수 내용을 실었다. 3,4부는 피해청소년을 만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생생하게 담아 지원자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 통로를 환기하고, 피해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나침반의 별책으로 마련된 <내 이름은 \_\_\_\_\_,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볼래?>는 피해청소년이 쉼터에 오기 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돕는 작업지와, 쉼터에서의 생활을 계획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실었다. 특히, 현재 <열림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열림터에 살면서 직접 쓴 이야기들도 있어, 또래들의 목소리로 현실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열림터**에서 피해청소년을 지원해왔던 과정을 돌아보며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것이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재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력경험과의 결별, 피해자로서의 자리매김, 가족 안에서의 위치, 퇴소 이후 생활까지도 다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과거와의 매듭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반문이 들기도 한다. 나침반 제작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큰 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위로하며, 앞으로 나침반의 활용을 위한 고민도 계속 가져가고자 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다녀와서

◎ 인턴 (한국외대 04) 조윤주

### 모자보건법제14조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조항이다. 현재 이 예외규정은 부모에게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또는 인적 간 임신의 경우, 그리고 모체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 이 허용 사유에서 부모의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유를 삭제하고 임신 초반에 상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회적 적응 사유'에 대한 낙태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2월 1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렸던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장으로 낙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표출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형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혹은 이법과는 무관하게) 지난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낙태수술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역시 뜨겁게 대립 하였고, 이러한 대립 구도 가운데 제시된 수많은 제안과 해결방안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낙태와 관련된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윤리이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인해 생긴 태아는 그 크기가 얼마나 작던지 간에 하나의 생명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낙태 반대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태아를 지우기 원하는 여성들은 악의 화신인가? 그들은 조롱당하고 비난받아야 할 죄인인가? 그래. 그들이 죄인이라고 치자. 그럼 그들이 죄인이 되도록 만든 또 다른 죄인들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또 그들이 죄인이 되게끔 만드는 이 사회는 어떠한가? 결국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슈를 한쪽에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왜 “또 다른 생명”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는가?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 태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던가. 태아를 지우기로 결정한 여성이 죄인이라면, 그 태아가 만들어지는 데 50%의 공헌을 했고, (여성이 자기 복제를 통해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피임에 있어서도 50% 이상의 책임이 있는 남성들 역시 죄인이 아닌가. 또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며, 미혼모에 대해 싸늘한 시선만을 보내는 사회,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에

### 목차

#### I.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친족성폭력의 개념
2. 친족성폭력의 범위
3. 친족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 II. 친족성폭력 상담의 준비

1. 상담자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2. 상담자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원칙
3.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초기 상담 체크 리스트
4. 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 III.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심리상담

1. 심리상담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들
3. 심리상담의 과정

#### IV.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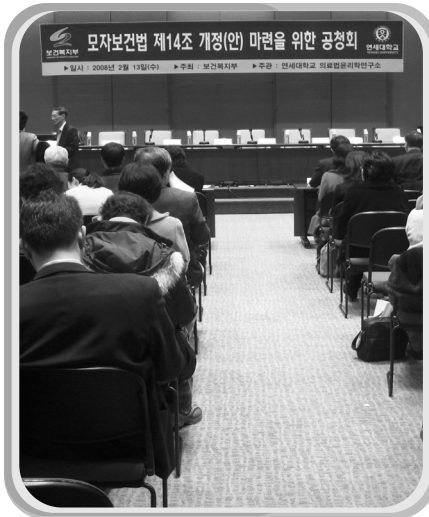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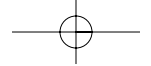
1. 쉼터지원
2. 학교지원
3. 의료지원
4. 법적지원
5. 퇴소 및 연계 지원

#### 나머지 이야기와 부록

##### <별책>

“내 이름은 \_\_\_\_\_,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볼래?”





게 제공할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 완경기 전까지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착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임신 전 과정의 주체인 여성의 고뇌, 여성의 모성에 대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해야할 때가 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보건 복지부 통계에 의해 잡히는 연간 낙태 건수는 34만건. 결국 태아의 엄마, 아빠가 될 뻔 했던 사람들의 수만 68만명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공식적인 수치다. 그렇다면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단지 그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결함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일부 선진국들이 인공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낙태

율이 훨씬 더 낮은 것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 될 예비 부모들에게 국가가 충분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서구 사회에서는 미혼, 비혼 부모에 대한 시선이 우리나라만큼 차갑지 않으며, 매우 어렸을 때부터 피임을 포함한 성교육이 매우 구체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낙태라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하며, 현실에 바탕을 두어 그 대안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또 이 대안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재생산권,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시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생명 경시 사상,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성적 자기결정권 등 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사문화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강도 높은 낙태금지 규정을 입법하고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생명보호에 충실한 가치관에만 흡족해 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범죄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무관심한척 방관하고, 사회구성원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의료진들이 수단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익대 이인영 교수) 그렇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무관심했고, 방관했으며, 묵인해 오기만 했다. 이제 낙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 사업 preview

###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큰 울림, 작은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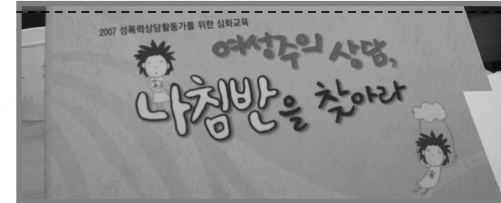
성폭력생존자의 ‘작은말하기’는 말하기가 가진 ‘치유’와 ‘운동’의 의미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서로의 호흡과 기운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느끼면서 때로는 분노, 슬픔,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을 분출하고 때로는 성폭력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가하며 때로는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해 유쾌한 반격을 구상하는 공간입니다.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자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자리인 ‘작은말하기’,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3월에는 26일, 카페 ‘사이에’(합정역 5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2008년 첫 번째 작은말하기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성폭력상담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성폭력상담 활동가를 대상으로 상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심화시키고 타 단체 활동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심화교육이 오는 5월에 진행됩니다. 4월에 모집을 시작하니, 참여하실 분들은 4월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주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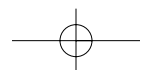


###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809차 수요시위가 4월 16일에 우리 상담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시발점으로 17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요시위는 연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정오에 오셔서 함께 수요시위를 만들어 보아요!



문의 02-338-2890





들고나기 인사

## Citi-경희 NGO Internship 활동 후기

◎ 한국외대 04 조윤주, ◎ 숙명여대 05 김동현



나눔터  
report & membership

**윤주**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보았던 것,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을 정리하려고 노트북 앞에 앉은 이 순간 지난 8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해 보았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진다. 사실 이번 씨티-경희 NGO 인턴십은 나의 첫 번째 사회생활이다. 물론 정식직장도 아니고, 단기로 진행되는 인턴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과 같은 경험이었다. 냉혹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의견 개진, 여성주의 캠페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등을 펼쳐온 활동가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회에 대해 조금은 방관적이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무심하기도 한 나 자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동현** 여중-여고를 졸업하고 여자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부끄러운 사실이 있는 본인은, 성차별은 구시대적 단어라 치부하며 20여년을 살았다. 하지만 '여자대학교'의 특수성은 자연스레 '여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잖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2007년 2학기에 수강했었던 '여성과 리더십'이라는 과목은 여성주의적 시각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많은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었다. 심지어 내가 '평등'이라 생각했던 것들마저 그 내막 깊숙이 '차별'이 존재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울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해 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있던 NGO단체에 대한 관심이 '여성단체'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작년 여름 즈음해서 새벽에 학원을 가기 위하여 종종 길음으로 지하철 계단을 뛰어 가는 순간 정장 차림의 아저씨가 (술에 취한 듯) 바짝 나에게 다가 붙어 성추행을 시도한 후로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월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것이 신체로 발산되어졌을 때 여성에게 끼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그 순간, 우렁차게 '미쳤어요!'라는 말 외에도 '개새끼야! 너 또라이 아니냐?'라고 제대로 욕박지르지 못했던 것이 못내 후회된다) 그 후로는 여성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게 된 2개월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설렘이라고나 할까.

**윤주** 성폭력 생존자들, 그들은 상처를 지니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와 같습니다 상담소의 부설기관인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쉼터이다. 열림터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의 영어 학습지도를 맡게 되었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만나 본 그 친구는 여느 심대들과 다른 너무나 귀여운 소녀였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숙제를 조금 내렸으면 좋겠고, 빅뱅의 노래가 좋고, 조그만 일에도 잘 웃는, 우리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15세 소녀 말이다. 이 세상에 상처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상처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참 닮은 구석이 많은 존재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동현** 대한민국과 맞서다 단기간의 인턴 활동이었기에 매일이 특별했지만 다른 부분 보다 조금 더 '내 인턴기'를 차별화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사무 업무를 통한 깨달음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흐름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외부 활동을 나갔던 것은 첫째주 금요일에 있었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참석으로 공청회라는 단어를 교과서 안에서만 보고 머리로는 생각했던 나로서는 무척이나 특별한 행사 중 하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에 배신감을 느끼고 '차별'에 울먹이고 있는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성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묵 중에 인정하고 있던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들이 '잘' 이용해야 할 것들이 아닌 '타파'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두 번째 공청회 참석은 2월 중순에 있었던,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로 이는 보다 구체적인 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고백하노라면 대한민국이 '인공임신중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태'라는 것을 '불

법'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3시간 남짓한 공청회의 상당부분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칠칠맞지 못하여 임신이 된 거 아니냐'고 억박지르는 남편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의 모습 아닐까? 태아의 생명이 먼저냐, 임부의 삶이 먼저냐 하는 양자택일적 선택이 아니라 태아와 산모를 분리하지 말고 사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다 나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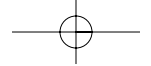
공청회를 통하여 사회 제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으로서 국가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현 대한민국이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맞이한 2008년이었기에 인수위원회의 조그만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감해야만 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내세웠던 부처 조직개편은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상담소에서 열렬히 시위에 참여했던 것 중의 하나는 단연 여가부(여성가족복지부) 통폐합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라는 비판이 솟구쳤다. 지금까지 여가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지나친 예산 낭비에 대한 네티즌들의 지적에 나 역시 찬성했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활동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복지부'가 그간 겪어 왔던 여러 일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나마 여가부가 존재하였기에 (여성단체 목소리를 단 50%라도, 그래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부에 보다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같은 대형 부서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또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기초적 '평등'에 관한 문제이며,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그 부서를 우

들고나기 인사 - Citi-경희 NGO Internship 활동 후기







들고나기 인사

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하나 그것은 과거에 비하여 한 발 내딛은 정도이지 완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인데, 이쪽의 일에 대하여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험악하게도 막말을 해대는 것 같다는 인상 또한 받았다. (물론 나도 그랬다) 사기업 경영진에 포진하고 있는 90% 이상의 남성비율, 승진이나 급여 인상 문제에 있어 '가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점,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문제들 등 이 모든 것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풀여져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즈음이면, 그간 활동가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일단 여성부로 축소개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이외에도 'E랜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도 직접 시위에 참여 한 바 있었는데 이 문제 역시 돌이켜 바라보건데, 비정규직에 대하여 나는 너무나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동시에 지금은 바뀌었노라고, 불과 한 달 전의 본인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하고 싶다. 대학 3년 가까이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쉽게 또는 너무나 맹목적으로 '시장경제'에 몰두해 있었기에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와 각종 매스미디어가 보도해 주는 노조 파업 문제들이 경제침체를 이끌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러한 직장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사리사욕만 챙긴다고 단정 짓고 있었던 것이다.(이것 참,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었던 건지, 부끄럽다.) 이 문제 역시 활동가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때 필자는 무슨 용기인지 망언을 서슴없이 발설하고 또 그 덕분에 지금껏 가지고 있던 주입된 사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즐기게 하고,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스스로를 '인권'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

학생이라 생각했던만, 그 모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경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려야 하는 목숨 같은 권리를 훼손당하는 일임을 깨달은 것이다.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단 말인가.

직접 TV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도 있었다.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반대의 의지를 모아 국민들 앞에 우리의 뜻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관심 없어 보이는 냉랭한 기자들에게 우리의 성명서를 돌리면서도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귀족은 듯 소심하게 앉아 책만 펼치고 있는 대학생 보다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지금이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리 높여 비판하는 예민한 문제를 우리는 건드렸다. 아니 건드려야만 했다. 군 복무에 바치는 청춘의 시간을 어떻게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고 군 내부에 각종 문제들이 난무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그들의 '힘든' 의무 수행을 보상해 준다면 그에 대한 타격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다시 말하여 남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듯이 여성단체가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상 체계를 더욱 고심하여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결국에는 모병제로 귀결되는 것이 좋겠으나 모병제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작금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가산점'을 도입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타격을 누가 입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결국 국방위는 이 법안을 경박한 세 번의 망치 두드림으로 통과시켰지만, 다행히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로 법사위에서는 제2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윤주** **그래, 우리는 당당한 마이너다**  
나와 동현이는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와는 너무나 판이한 세상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극심한 물질적 궁핍 혹은 전쟁과 같은 시대의 광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 혹은 삼촌이나 이모 세대처럼 억압적인 독재 정부를 경험해 본 적 또한 없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대이다. 우리는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참 많은 행운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가 김영하가 언급했듯, 참단 기기도 잘 다루고, 기성세대에 비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 학점도 다들 좋은 편이다.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만큼 취향도 분명하고, 놀 때도 화끈하다. 그런데 토래 친구나 선, 후배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도대체 왜 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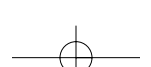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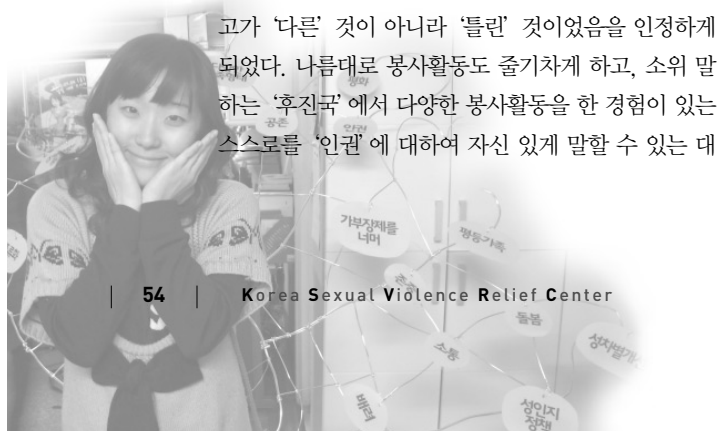
정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난 2달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인턴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무엇"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했다. 결국 우리 세대는 내면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서만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에너지를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비판하고 개혁하는데 써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을 그냥 받아들이기 뿐이었다. 겉으로는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혁신적인 세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답습자들에 불과하다. 토익점수를 900점 이상 받아야 유리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다. ○○회사 연봉이 높다고 하면 그 회사가 마냥 좋은 곳이라 생각했다. 김광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에서 젊은 시절 '때묻지 않은 고민'을 하며 밤을 지냈지만 이제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다시 만난 친구들과 처자식의 안부를 묻는 한 소시민의 슬픔을 노래했으나, 우리 세대에게는 그런

때묻지 않은 고민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나 하나 싶다. 어딘가 모르게 서글퍼진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 활동가들은 나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평범한 길을 거부하고 '당당한 마이너'가 되기를 자처한 그들은 오늘도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지속적 노력 하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여성부가 등장했고, 차별 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현** **참 고맙습니다**  
워낙에 솔직한 성격이 타고 나서 마음에 들면 숨김없이 내뿜는 탓에 '넌 너무 칭찬을 많이 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굳게 믿고 있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비판이 있거나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토론할 때는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 가식은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다고 단언 한다. 여성단체에서 짧지만 감동적이었던 2개월의 인턴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멋진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부족한 글 솜씨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벅찬 감사를 드린다.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 같은 여성이 미웠던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 하지만 상근자님들을 인턴 대 활동가의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먼저 만났다면 아마 이분들이 나를 미워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럴 만도 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씨티-경희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되고 더욱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멋진 여성으로 거듭났음을 나름대로 주장해 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 주위에 여자, 남자 친구들에게는 2개월의 활동과 그 소감이 담긴 나의 목소리를 소리 있게 전달하여 대한민국을 함께 새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인턴 이후에도 계속 소중한 인연을 이어갔으면 하는 개인 적 바람을 이곳에 적어 본다.  
[편집자주: 동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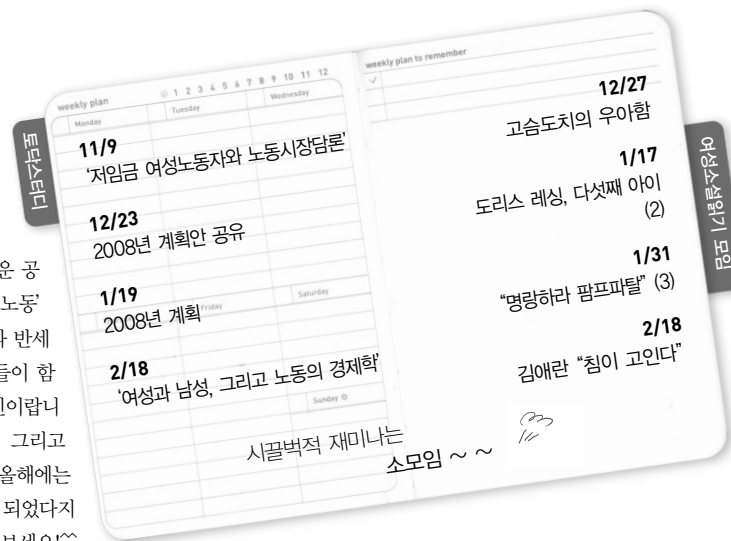


## [소모임 활동]

### ♥ 토닥소모임

토닥의 겨울공부들^^

이번 겨울, 토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를 다룬 논문을 함께 읽었고요, 연말연시에는 두 차례의 계획회의를 통해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 하반기 '여성노동'에 이은 2008년의 주제는 '페미니즘 정치경제학과 반세 계획'입니다. (이런 거대담론(?)들과 일상의 고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도 토닥이들의 고민이랍니다.^^) 그 시작은 Francine D.Blau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학지사, 1998)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의 생각들을 담아 나눔터에 고정칼럼을 싣게 되었다지요. 지금, '소모임생각'에서 첫 모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 여성소셜읽기 모임

아직은 춥지만 입춘도 지났으니 곧 봄이 오겠죠?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 동안 여성소셜읽기 모임에서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많은 책들을 뒤적였어요.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철학소설 <고슴도치의 우아함>에서 수위아줌마와 천재소녀를 만나기도 했고, 전설 속의 무녀 <바리데기>의 현재를 그려보기도 했으며, <과부마을 이야기>를 통해 여자들만 산다는 과부마을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를 읽고 가족이데올로기와 임신, 육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명랑하라 팜파탈>이라는 김이름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시의 세계에 흠뻑 취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젊은 여성작가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재밌는 소설과 마음을 울리는 시, 그리고 여자들의 수다가 도란도란 피어나는 여성소셜읽기 모임에 놀러오세요~

## [훈훈한 기부]

- ♥ 반성폭력 서포터즈 한해 보내기 날' 베품시장에 기부해 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반성폭력 기금마련이 더욱 풍성해 졌습니다. 세 아 **이윤상 이효숙 정하경에 조은희 조혜옥 하진옥**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 열림터에 쌀을 기부해 주신 **박윤숙** 전 책임상담원 선생님과 **합정동사무소**, 그리고 멀리 남원에서 직접 농사 지은 쌀은 보내주신 **강대연** 회원님과 천안에서 쌀 한가마니를 안고 오신 **곽희영**님, 더불어 직접 만든 약과를 보내주신 **고정님** 평화회원님과 맛있는 과자선물을 해주신 **신상호** 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세계 각국의 향기로운 커피를 기부해 주시는 **이효숙** 전 책임상담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효숙님께서 운영하시는 커피 공방 cafe the sol에서 커피를 드시면 수익의 일부가 우리 상담소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사이트에서!! <http://www.sisters.or.kr/coffee/>)

## [반한날 일일서포터즈]

- ♥ '반성폭력 서포터즈 한해 보내기 날' 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힘든 일을 도맡아 주신 일일서포터즈 **김보영 세발 박보 이채 어지 우주 소영 가온하나 미정 미자 선영**님들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런터를 전액 기부해 주신 반한날의 명사회자 **어린**님, 마이크 올림중에도 불구하고 멋진 화음으로 노래하여 인기몰이를 한 **오매**님과 **키라**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열림터 가족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 문구미정 님(수학), 조윤주 님(영어), 김동현 님(영어), 토리 님(영어), 이현주 님(영어), 가온 님(영어), 주혜정 님(피아노), 자비 님(영어, 수학), 유선옥 님과 유화선 님(뜨게질)